장편실화

인생결차

인 훈

금성청년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제 5 장
대양에 흘러들다

줄기줄기 강줄기들은 대양에로 흘러든다.

인디아의 주요강들인 강가강, 브라마푸트라강, 고다바리강, 마하나디강, 크리쉬나강, 카베리강, 나르마다강들도 다 인디아양으로 흘러들고있다.

그뿐이랴. 아프리카의 닐강도, 라틴아메리카의 아마조나스강도, 로씨야의 볼가강과 중국의 창강(장강)도 흘러흘러 아득한 그 줄기를 넓고넓은 대양에로 잇고있는것이다.

서로 다른 대륙의 그 모든 강줄기들을 하나로 합쳐 품에 안고 출렁이는 한없이 넓고넓은 대양의 품!

그 품으로 흐르는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것은 법칙이다.

비슈와나스는 말하였다.

《모든 강줄기들은 마지막에는 다 대양에서 만납니다.

강줄기들이 아무리 범람하여도 대양은 이런것을 다 포섭합니다.

주체사상은 바로 이런 대양과 같습니다. …》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2차회의를 결속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날은 2010년 4월 13일이였다.

그자리에는 피부색이 서로 다른 각 대륙의 집행위원들이 다 참가하고있었다. 오가미 겡이찌(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하리쉬 굽따(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까뮈지꾸 옥따브(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마떼오 까르보넬리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등 …

정말로 각대륙의 강줄기들이 흘러흘러 대양의 품에 모여든것인가.

주체의 조국으로 달려온 그 가슴들은 환희로운 삶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지향으로 끝없이 약동하고있었다.

닐강의 길고긴 흐름마냥 끝이 없을상싶은 아프리카대표의 줄기찬 연설.

《우리 아프리카에는 50여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각이합니다.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뽀르뚜갈어…

여러어로 말하는 나라들과의 사업은 처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난점으로 되였지만 주체사상을 배우려는 그들모두의 열의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습니다. …

아프리카에는 많은 경우 서방의 출판물이 지배하고있고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텔레비죤망에 출연하여 자기 나름의 주의주장을 선전하고있습니다. …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자주의식을 키워가고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대다수 사람들이 품고있는 생각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프리카나라들은 자기들의 독립 50돐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나라들의 독립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있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주권을 행사해오지 못했기때문입니다. …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상에 기초하여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것입니다.

그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이 위대한 사상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사회건설에로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아프리카는 지금 자기의 제2해방을 기다리고있습니다. …》

계속하여 까뮈지꾸 옥따브는 아프리카대륙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주체사상연구보급정형을 나라별로 상세히 언급하였다.

여러 나라들을 적시며 흐르는 닐강마냥 아프리카대륙을 휩쓰는 주체의 바람이 여기에 그대로 불어오는듯싶었다.

아마조나스강의 풍만한 흐름마냥 거침없이 울리는 라틴아메리카대표의 연설.

《우리는 2012년까지 온 라틴아메리카의 대륙에 주체사상연구소조망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과떼말라, 쌀바도르, 아이띠, 도미니카, 브라질, 우루과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주체사상연구소조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습니다. …

현재 에꽈또르, 메히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는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부문별로 결성되여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하고있습니다. …

나는 리사장선생과 사무국장선생이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하여 우리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바랍니다. …》

아마조나스강의 넓고넓은 물모이구역마냥 주체사상은 라틴아메리카대륙에도 나날이 확대되고있는것이였다.

열변을 토하는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는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이며 주체사상연구메히꼬전국조정위원회 위원장이였다. 그는 메히꼬의 련방국회 하원의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였다. 그러한 그가 이끄는 메히꼬와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근간에 와서 더욱 활기를 띠고있었다.

그해 1월에 메히꼬를 방문한 오가미 겡이찌는 그 나라에 휩쓰는 주체사상열풍을 보고 매우 놀랐으며 큰 고무를 받았다고 한다. 그 모든것은 라몬의 적극적인 활동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아시아대표도, 유럽대표도 모두 감동적인 토론들을 하였다. 집행위원회 제11차회의이후 각 대륙들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총화하고 2012년까지의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그들의 가슴가슴은 흥분으로 높뛰였다.

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맞으며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보급선전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2차회의 결의가 채택되였다.

그들의 열의는 대단하였다. 계획했던 시간이 모자라 다음 일

정까지 미루며 회의를 계속하는 정도였다.

회의기록을 맡은 4명의 녀서기가 부지런히 손을 놀린다. 모두가 주체사상국제연구소사무국 성원이다.

오호리 기요꼬와 나까하라 사유리는 국제연구소창립대회 참가자들로서 30여년을 주체의 길에 서있는 1세신봉자들이다.

다끼자와 히로꼬!

크고 시원하게 생긴 그의 두눈은 정갈한 호수같아서 마주보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그는 이제 금방 30대에 들어선 젊은 녀성이지만 주체의 길에 나선 그의 년한은 짧지 않다. 소녀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조선을 방문하면서 주체사상에 공감해온 그의 모습을 나는 여러 국제회의장들에서 볼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 다끼자와 야스꼬 역시 국제연구소창립대회 참가자의 한사람이다.

리미순!

그는 총련계조선녀성이다. 오늘도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청춘의 열정을 안고 활약하고있는 그의 나이가 이제는 환갑이 지났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는다.

1970년대부터 조선신보사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그는 점차 주체사상연구보급의 길에 나섰다. 일본에 휩쓰는 주체사상의 열풍은 그로 하여금 이길에 스스로 나서게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도 국제연구소사무국 성원으로 이자리에 참석하여 회의를 기록하고있는것이였다.

대외활동의 무기는 언어라고도 할수 있다. 다국어소유자인 그는 동시통역의 도움이 없이도 각 대륙의 목소리를 즉시즉시 기록해갔다. 세계에 더 높이 울려퍼지는 주체사상의 찬가를 들으며 그의 가슴은 젊어지고있었다. 그 노래에 떠받들리여 그는 오늘도 청춘으로 사는듯싶다.

대양의 품에 모인 크고작은 강줄기들은 하나의 흐름이 되여 막을수 없는 시대의 노래를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시대의 장엄한 그 노래를 지휘하고있었다.

《대양에로 흐르는 강물의 흐름을 막을수 없는것처럼 주체의 기치밑에 자주화에로 나아가는 인류의 전진운동은 그 무엇으로써

도 막을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다 해도 정의와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길에서 삶의 보람을 느낄것이며 그길에서 인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주의 새 세계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동료들과 벗들!

우리모두 서로서로 손을 굳게 잡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와의 호상련계, 호상협조를 계속 강화해나갑시다.》

그의 말에 열렬히 호응하는 각 대륙의 집행위원들의 열기띤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주체사상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것처럼 이 세상에 범람하는 서로 다른 당파, 학파, 교파들의 줄기를 다 포섭할수 있는 대양의 품이라고.

1. 우리의 순례지

인간은 정신적안정을 바란다.

아마도 원시시대에 벌써 종교라는것이 발생한것도 그때문이리라.

자연의 법칙을 리해할수 없었던 원시인들은 저들의 삶과 죽음이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전지전능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러한 믿음이 확산되면서 체계화된것이 종교였다. 그러고보면 무지의 산물이 종교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시초에는 운명을 리해하고 개척하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였다. 바로 그래서 인간의 운명문제를 건드리는것으로 해서 종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였으며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래서인가? 이 무지와 몽매의 《거대한 창조물》이 발전하는 과학에는 아랑곳없이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 크고작은 교파들을 수많이 이루며 인류정신의 문화를 지배해온것은…

인디아에서도 전통적인 종교인 힌두교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지배해오고있다.

종교가 무지의 산물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어찌 종교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종교가 형성되고 존속될수 있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본성과 배치되는 착취사회 그자체였다.

모든 성서는 사람은 악마의 유혹을 제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수 없고 신의 도움으로써만 물리칠수 있으며 그래서 신을 믿고 그의 교리대로 실천해야 구원될수 있다고 설교하고있다.

생전에 선한 행위만을 해야 죽을 때 지옥이 아니라 천당으로 간다는 교리를 믿고 따르며 인간은 너무도 오랜 세월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순종과 복종속에 살아왔다.

그 누군가가 말한것처럼 교회는 한번도 천국에 가보지 못한 신사들이 영원히 천국에 갈수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찬양하는 장소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존재이다.

그러한 인간이 어찌 자기의 지향과 념원을 장구한 세월 환상적이며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만 의거할수 있으랴.

의지해서 살아가면 온갖 소원을 성취해줄뿐아니라 래세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수 있게 해준다는 《신》이나 《하느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는 고대, 중세, 근대시기에 이르면서 점차 사람들의 정신령역에서 가셔지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이 세상에 그 누가 저 하늘에 《하느님》이 실지로 존재한다고 믿고있으랴.

힌두교도들과 불교도들은 《브라만신》과 《부처님》을, 그리스도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은 《하느님》과 《알라신》을 오늘도 설교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이리라. 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로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뿐.

대대로 힌두교를 숭상하는 샤르마가문도 실지에 있어서는 신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을 거듭 방문할수록 인간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와 같은 신앙적존재에 의탁하고있는 여러 교리와 비교해볼 때도 주체사상은 얼마나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보편적인 사

상인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것이였다.

사람들은 현실의 위인을 찾고저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천당을 찾으려거든 조선을 찾으라. 〈하느님〉을 믿으려거든 **김일성**주석을 믿으라.》

이것은 대대로 힌두교를 숭상하는 샤르마가문에서 태여난 그의 종교관이 주체사상에 굴절되여 도출된 확고한 견해였다.

인디아력사를 돌이켜보면 지식찬미에 기초한 인디아의 성경인 《베다》와 진실을 추구한 인디아의 철학고전인 《우파니샤드》도 수많은 지성인들과 민중의 마음을 끌었다. 그리고 인디아의 저명한 사상가 마하트마 간디가 설교한 사랑과 헌신, 비폭력과 인도주의에 관한 사상은 아직도 인디아사람들에게 큰 여운으로 남아있다.

비슈와나스는 다년간의 연구와 체험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디아의 이러한 사상유산들을 포함하여 인류의 모든 진보적사상들을 총화하고 집대성하여 포섭한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던것이다.

하여 그는 수많은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을 늘여갔고 그들을 조선에로 떠밀며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은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있어서 〈메카〉와 같다. 그러므로 조선방문은 순례자의 〈메카〉답사처럼 필수적인것이다.》

종교의 개념을 빌어 표현한 그의 이 말은 동료들에게 공감을 주었다.

원래 메카란 이슬람교도들의 순례지를 의미한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신앙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순례지를 방문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요구, 더없는 기쁨으로 여긴다.

인디아는 원래 종교적인 나라이다.

이 나라에는 수천개의 사원이 있으며 모든 집들에서는 자기들이 숭상하는 불상이나 그림들을 다 걸어놓고있다. 신자들은 자기가 숭상하는 신들의 탄생일이면 그들의 고향을 순례한다. 성지라는것은 다 사원들이다.

비슈와나스가 리해한데 의하면 종교인들은 순례지답사를 통하여

정신적위안을 얻고 신앙심을 두터이 한다면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자기의 《메카》인 조선방문을 통하여 사상정신적재부를 얻고 숭고한 정신적경지에 이르며 자주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한것으로 다진다고 보았다.

비슈와나스는 1980년부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로 되여 자기의 활동무대를 세계적범위에서 더한층 넓혀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는 인디아와 아시아,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의 연구보급을 위해서 조선방문을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웠다. 그는 지구의 모든 대륙들에 점점 확대되고있는 연구조직들은 조선을 시작점으로 하여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가 조선방문을 《메카》답사로 말한데는 조선을 찾아 위대한 사상의 창시자를 만나뵈옵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사상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온 그의 체험에 생활적바탕을 두고있는것이였다.

그는 해마다 조선을 방문하였다. 심지어 어떤 해에는 2～3번씩 방문하였다.

그는 조선을 방문할 때면 먼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기를 소원하였으며 그러한 소원이 성취된 자리에서는 언제나 초학도의 자세로 수령님께 주체사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이 세상을 리해한 인디아의 한 제자로서 그는 더 많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을 키워 그이의 앞에 내세우는것을 고귀한 자기의 사명으로 간주하였다.

인디아에서도 이제는 숱한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대렬을 이루었고 적지 않은 핵심들이 자기 활동을 하고있었다.

이즈음 장경일이 또다시 인디아주재 조선대사관에 파견되여 왔었다.

비슈와나스는 조선대사관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면서 핵심성원들로 구성된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 대표단을 조선에 파견할 계획을 추진시켜나갔다. 그 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을 축으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를 창설할 결심이였다.

주체사상에 대한 공감은 주체사상의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에 대한 방문으로 이어지기마련이다.

1980년 5월 25일 드디여 무케르지를 단장으로 하는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 대표단이 조선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였다.

무케르지는 당시 인디아 비하르주주체사상연구학회 위원장이였다. 고빈드를 비롯한 전망있는 신봉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떠나보내면서 비슈와나스는 신신당부하였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김일성**주석을 꼭 만나뵈옵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것이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분명 이 세상에 다시 태여나게 된다고 그는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또한 그는 방문기간 주체사상의 훌륭한 원리가 조선의 현실에 어떻게 구현되였는가를 잘 파악하고 돌아와서 인디아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들을 떠나보낸 후 비슈와나스는 조선대사관을 찾아가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대표단이 **김일성**주석을 꼭 만나뵈옵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 돌아오도록 도와줄것을 거듭 부탁하였다.

이처럼 인디아에서의 모든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성장과 발전은 그의 활동과 뗄수없이 련관되여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이제 창설하려고 하는 지역연구소의 청사와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달라붙었다.

무케르지를 단장으로 하는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 대표단은 조선에 도착하여 모든것을 객관적안목으로 랭정하게 주시하기 시작하였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조선은 참으로 공감할만한 사회였다. 비슈와나스가 조선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밟아야 할 순례지라고 하면서 적극 떠밀어준것이 참으로 고맙게 여겨지는것이였다. 새로운 사상이 구현된 새로운 사회를 직접 체험하는 지성인들의 감동은 실로 큰것이였다.

조선방문의 환희로운 날이 번져질수록 그들은 사람의 힘을 중시하는 그 고귀한 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위대한 철학가의 체험담을 통하여 듣고싶었다.

만나뵙고싶었다. 이처럼 위대한 사상을 현실로 펼치신 **김일성**주석을 그들모두는 못견디게 만나뵙고싶어짐을 어쩔수 없었

다. 비슈와나스가 처음에 그랬던것처럼 그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꼭 한번 만나뵙게 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손꼽아 기다리는 대표단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게 된 그들의 마음은 끝없이 설레이였다.

조선을 방문한지 보름이 되는 6월 9일 아침, 평안북도 농촌지구를 현지지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에서 대표단일행을 만나주시였다.

대표단일행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당도하니 그이께서는 벌써 밖에 나와 서계시는것이였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무케르지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은 모두가 제나름대로 위대한 사상의 창시자가 과연 어떤분이실가 하고 머리속에 그려보고있었다. 그이를 여러번 만나뵈온 비슈와나스로부터 **김일성**주석은 이 세상에서 제일 너그럽고 인자한 성인중의 성인이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접견직전까지 그들이 그려본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은 위엄있고 거룩한 모습외에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수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문밖에까지 나오시여 우리를 맞이하시다니!

대표단일행은 모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그이께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길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라고 하시며 일행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순간 그들모두는 자기들의 가슴속에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끝없는 위대한 사랑의 물결이 꽉 차흘러들어옴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모두가 머리를 들어 그이의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빛을 뿌리는 안광에서 위인의 비범성을 엿보았고 온 얼굴에 차넘치는 부드러운 미소에서 그들은 다심한 부모의 살틀한 모습을 보았다.

그처럼 위엄있게 그려지던 영상은 가장 평범하고 소탈한 친어버이의 모습이였다.

일행은 그이께서 이끄시는대로 기념사진부터 찍고 방안으로 들

어갔다.

자리에 앉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그이의 너그러우신 인품에 이끌리여 무케르지는 심중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저는 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철학이 전세계 수억만 인민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불멸의 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류에게 자연과 사회를 개척하는 거대한 힘을 안겨주는 그 참된 진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알고싶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우리가 창시한 주체사상은 어려운 시련속에서 체험을 통하여 하나하나 검증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지난 기간 그 고귀한 진리의 매 문구가 어떻게 다듬어졌는가를 생동한 사실을 가지고 감회깊게 이야기하시였다.

고빈드도 심중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열정을 모아 말씀드렸다.

《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전세계 인류를 위한 위대한 철학입니다.

주체철학은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고 인류를 번영에로 이끌어가는 인간옹호의 참다운 철학입니다.

지금 전세계 인민들은 주석각하께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모든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며 모든 사회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실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주석각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실뿐아니라 전세계 인민들의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저는 주석각하께서 앞으로 쁠럭불가담운동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실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빈드가 류창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며 그의 말을 가볍게 넘기시였다.

《저는 젊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저의 일생을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해서 다 바치겠다는것을 주석각하께 확언하는바입니다.》

근엄한 표정을 짓고 말하는 고빈드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였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나를 과분하게 칭송하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하여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겸허하신 그이의 말씀은 대표단성원들을 더욱 감동시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어떻게 구현하겠는가에 대하여 생동한 실례를 들어 진지하게 말씀하시였는데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실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준 력사적인 강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기 나라를 부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려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남이 하는 일은 다 커보이고 신비스러운 일처럼 생각하면서 자그마한 난관이 제기되여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 한다면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고 하시면서 파란많은 곡절속에 엮어진 어제날의 일들을 옛말처럼 들려주시였다.

《우리 나라는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것이 다 파괴되였습니다.

전후복구건설을 할 때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재가루만 남은 빈터우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기본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 로선을 허황한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서 어떻게 중공업이요, 경공업이요, 농업이요 하는가고 시비질해나섰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다른 나라 경제정책을 받아들일것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들은 농업부터 발전시키면서 거기서 얻은 자금을 가지고 공업을 발전시키자고 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반격을 가했다,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기계가 요구되지 않는가, 관개공사를 하려고 해도 양수기가 있어야 하고 저수지를 건설하려고 해도 세멘트가 요구된다, 그러

니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중공업은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어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공업이다, 이렇게 면박을 주었다고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시비군들은 아무것도 없는데서 어떻게 기계공업을 발전시킬수 있겠는가고 집요하게 훼방을 놓았지만 나는 우리자체로 뜨락또르를 만들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던 형제나라 사람들도 우리 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 뜨락또르를 만들어 무엇하겠는가, 적어도 1년에 자동차를 몇십만대씩 생산해야 수지가 맞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국제시장에 나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뜨락또르를 만들려고 하는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달구지보다 좀 나은 뜨락또르를 만들어도 그것은 벌써 현대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데 거기에 무슨 수지가 맞고 안맞고 하는 문제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기술과 장비수준으로는 절대로 뜨락또르를 만들지 못한다고 고집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합심하여 끝내 자체의 힘으로 뜨락또르를 만들어냈다, 우리 기술자들은 뜨락또르를 설계할줄조차 몰랐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의 뜨락또르를 분해하여 도면을 그렸고 그것을 보고 끝내 뜨락또르를 만들어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확신에 넘치신 모습을 우러러보며 무케르지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이 어떤 시련속에서 검증되였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것이였다.

《주석각하, 주체사상이 투쟁속에서 검증된 필승불패의 사상이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고빈드가 이렇게 말씀올리자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말에 긍정하시였다.

《그렇습니다. 주체사상은 책상우에서 만들어낸 리론이 아니라 피어린 투쟁속에서 뼈저린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과학적인 혁명사상입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옛말을 하나 더 하겠다고 하시였다.

오래전에 조선에서는 철도수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정에 맞는 전기기관차를 생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에서는 그렇게 크고 섬세한 기계를 만들어본 경험도 없었고 만들만한 물질기술적수단도 가지고있지 못했다.

그때 조선에 와있던 유럽의 어느 나라 대사는 조선사람들이 전기기관차를 자체로 만들면 자기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다.

어느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대사를 만나 당신들은 우리에게 전기기관차를 거저 주지 않지, 또 사오려고 해도 전기기관차 한대에 몇백만원씩 내라고 하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자체로 만들수밖에 없지 않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조선에서는 그 나라에서 전기기관차 한대를 몇백만원 주고 사다가 분해하여놓고 하나하나 도면을 만들었다.

해방후 자라난 젊은 기술자들은 이렇게 수만개의 부속품을 일일이 그려가면서 끝끝내 자체의 힘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그러자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던 그 대사는 조선에서 자체로 만든 전기기관차가 달리는것을 보고 간다는 소리없이 슬그머니 가버리고말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려주시고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처럼 난관을 겪으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말하여주었습니다.

자기 나라 인민과 지식인들을 믿고 그들의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한걸음한걸음 나가는것이 바로 주체라고 말하여주었습니다. …

우리의 사상은 리론적으로만 좋은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한데 의하더라도 뒤떨어진 나라는 반드시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사대주의적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체사상은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는데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견지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이 제기하고있는 혁명적인 리론이 공리공담으로 되지 않고 나라의 부강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학설로 되자면 바로 공업을 비롯한 경제건설전반에서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례를 들어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이 어찌나 감동을 주었던지 대표단성원들은 그 하나의 사실에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 파악하게 되는것이였다.

그러면 그들을 감동시킨 그 이야기는 어떤것인가.

한때 일본과 남조선에서는 경제를 《고도성장》시킨다고 하면서 원유를 공업전반에 대대적으로 도입하고있었다.

북조선의 일부 경제학자들도 그 본을 따서 우리도 원유를 쓰는 발전소를 건설하자고 제기하였다.

물론 그렇게 하면 석탄발전소보다 건설기간이 퍽 단축되고 운영에서도 비할바없이 우월한 점들이 많을것이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원유가 나지 않기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공업을 주체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자들에게 우리 나라에 있는 원료에 의거하여 모든 공업을 발전시킬것을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원유를 쓰는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으며 원유를 원료로 하여 섬유를 생산하거나 수지제품을 만드는 공업도 발전시키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에 풍부한 무연탄과 석회석, 수력자원을 가지고 공업을 발전시킬것을 주장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전력공업과 섬유공업, 수지공업을 발전시켜온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상세히 말씀하시고나서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옷을 가리키시였다.

《이것 보시오. 이 천도 카바이드에서 뽑은 실로 짠 비날론천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석회석과 무연탄이 무진장합니다.

우리의 일부 학자들이 원유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킬것을 주장하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원유위기가 조성되였습니다.

원유위기는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유값은 몇배로 올라갔으며 그에 따라 원유를 가지고 생산한 물건값도 몇배로 올라갔습니다.》

원유가 없는 유럽나라들은 화학공장들을 50프로정도밖에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고도성장》을 부르짖던 일본과 남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시기 원유를 고집하던 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이 참으로 옳았다는것을 현실로 깨닫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디아의 손님들을 둘러보시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보십시오, 우리가 공업분야에서도 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운것이 얼마나 정당하였습니까. 실천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일행은 크게 공감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많은 토론들을 해왔지만 주체사상이 그처럼 만능의 힘을 가지고 력사의 전진운동을 떠밀어가고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그들모두는 위대한 사상의 눈부신 빛발을 보았다.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한 그들모두는 이길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인생의 철리를 깨닫게 하였는가를 생각하게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행운이였다. 영광이였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입니다.

때문에 인민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동원하면 못해낼 일이 없습

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처하더라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식대로 걸어나간다면 반드시 부강한 나라로 될것입니다.》
선언처럼 울리는 그이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넣으면서 일행은 위대한 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시대의 기수가 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잊을수 없는 이 시각은 그들모두에게 있어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에게서 받는 첫 《강의》였다.
무케르지는 더없이 흥분하였다.
주체철학이 이토록 사회정치생활과 경제정책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방향각을 제공해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것이다.
인류의 머리우에는 수많은 철학사상과 리념들이 배회하고있었지만 주체사상처럼 사회와 혁명의 진로를 그렇듯 명철하게 밝혀주지는 못하였다고 그는 철학가의 자기 한생을 돌이켜보며 단언하였다.
담화는 여러 시간이 걸려서야 끝났다.
무케르지는 위대한 철학사상을 창시하신 탁월한 스승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이렇게 제기하였다.
《주석각하, 한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디아에서는 귀한 자식을 축복하여줄 때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석각하의 접견을 받으면서 각하이시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창조의 힘을 안겨준 어버이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주석각하, 인류의 어버이로서 이 아들을 축복하여 머리를 쓰다듬어주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다.
그의 소원은 성취되였다.
그러자 같은 심정이였던 일행이 뒤따라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의 머리도 쓰다듬어주시였는데 자애깊은 손길이 닿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참으로 숭엄하였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치심앞에서 인디아의 학자들은 이렇게 첫 접견부터 완전히 매혹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을 떠나보내시며 말씀하시였다.

《좋은 계절에 또 오십시오.

할 이야기들은 많은데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이렇게 그들은 주체의 전사로 이 세상에 태여났다. 위대한 성인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라고 자기들을 간주하는 그들의 긍지는 끝이 없었다.

비슈와나스의 모든 말을 현실로 체험하였고 그이상 감동된 그들이였다.

무케르지는 말하였다.

《조선은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순례지이다. 우리의 정신적지주는 **김일성**주석이시다.》

그렇다. 그들이 순례지로 간주한 조선은 이 세상의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색, 각이한 신앙과 정견들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주》라는 하나의 리념으로 포섭하고 품어안는 위대한 사상의 조국으로 빛나는 나라였다.

새 사회, 새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조선으로 쏠리고있었다.

2. 주체의 봄을 위하여

몇년만에 다시 만나는 친구들인듯 비슈와나스는 무케르지일행을 뜨겁게 포옹하였다. 하긴 《유토피어》세계에 처음으로 가서 새롭게 탄생하고 오는 그들이였으니 그럴만도 한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기뻤다. 조선을 방문하였던 대표단의 전원이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고 새 사람이 되여 돌아온것이 기뻤다.

주체사상의 조국을 방문하고 그 사상의 창시자로부터 축복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얼굴마다엔 희열이 한껏 어려있었다. 그들모두에겐 힘이 솟구쳤고 포부와 희망이 나래쳤다.

인류의 대성인으로부터 정신적계시를 받아안고 한껏 흥분되여 조

국에 돌아온 이들을 태우고 비슈와나스는 차를 몰아갔다. 실지 이들보다 더 흥분된것은 비슈와나스였다.

그의 심장은 웨치고있었다.

보라, 나 하나만이 아니지 않는가?!

만나뵙는 사람모두가 그러한것이다. 누구나 그이를 한번 만나뵙기만 하면 새롭게 부활하는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이를 만나뵈오면 태양의 그 인품에 스스로 반하여 모든것을 터놓으며 한생을 따라가게 될것이다.

때문에 더 많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을 키워야 했다. 그리하여 그들모두를 그이앞에 내세워야 했다.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부활하여 세상은 자기의 모습을 새로운 봄빛으로 변모하게 될것이였다.

주체의 봄을 위하여!

그날을 향해 지금 비슈와나스는 바쁘게 가고있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차를 그레이터캘라슈거리로 몰아갔다. 그 거리에는 비슈와나스의 저택이 있었다. 모두는 비슈와나스의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차는 그의 집을 그냥 지나쳤다. 그들은 조선대사관으로 간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집옆에 바로 조선대사관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차는 조선대사관을 지나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단층집마당으로 쑥 들어가 서는것이였다.

아담하게 꾸려진 독채였다. 비슈와나스의 집은 522번지인데 여기는 502번지였다. 비슈와나스의 집과 조선대사관과 나란히 있는 건물이였다.

《자, 들어가 집구경을 좀 하세.》

비슈와나스는 설명없이 이들을 집안으로 떠밀었다. 일행은 영문을 모르고 집안을 두루두루 살펴보았다.

큰방이 4칸이나 되고 위생설비가 갖추어진 정갈한 집이였다. 모두가 이만하면 괜찮은 건물이라고 하였다. 그제서야 비슈와나스는 말하였다.

《이 집은 내가 세를 낸 집이네. 물론 쓰고싶을 때까지.》

《?》

《지역연구소를 개설하려면 우선 건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일행은 탄복하였다. 저마다 비슈와나스의 손을 잡았다. 모든 일을 미리미리 설계하며 빈틈없이 조직해가는 그가 고마왔고 날이 갈수록 돋보였다. 시작부터 그랬듯이 그는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일에 심혈을 들부었으며 언제나 동료들을 내세웠고 말없이 뒤에서 모든 일을 조종해갔다. 웅심깊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것이였다.

그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믿음직한 그런 길잡이, 그런 조직자가 항시 곁에 있다는것은 인디아의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되며 또한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그들은 다같이 **김일성**동지의 제자로 태여난 인디아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였다.

그들은 며칠을 두고 토론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이미 지역연구소의 기구와 사명 그리고 창설에서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안을 작성해놓고있었다. 학회성원들은 그것을 놓고 실무적인 합의를 거듭하였다.

그들은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2돐이 되는 오는 9월 9일을 계기로 그 전야에 창립하기로 락착하였다. 지역연구소창립을 보다 현실적이고 의의있게 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주체사상토론회를 크게 조직하고 그끝에 창립대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시간이 없었다. 9월 9일까지는 이제 2달이라는 시간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모든것은 사상의식이 결정한다는것을 이미 잘 알고있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이였다. 각기 분담이 조직되였다. 그것을 안고 그들은 바삐 뛰기 시작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우선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의 련계를 취했다. 그것은 지역연구소는 국제연구소의 산하조직으로 되기때문에 상급조직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세계적분위기를 마련하자는것이였다.

그는 또한 정부와의 사업에 들어갔다. 당당히 나라의 승인을 받고 새로 나오는 조직을 정부에 등록하기 위해서였다.

고빈드는 방글라데슈,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돌면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내오는 사업을 도와주었고 연구소조모임들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다시말하여 그는 지역토론

회준비와 함께 지역연구소를 내오기 위한 지반을 닦아나가는 사업을 내밀고있는것이였다.

무케르지는?

파트나시의 정든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안해 로밀라와 마주앉았다.

《여보, 나는 아무래도 부총장직을 내놓아야겠소.》

뜻밖의 말에 로밀라는 의아해하였다.

《그건 왜요?》

이미 모든것을 결심한 무케르지는 서슴없이 말하였다.

《내 량심이 그것을 가리키기에 말이요.》

《아니, 그러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주체는 내 생명이고 인류의 생명이요. 그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살게 될거요.》

《…》

《당신도 읽지 않았소. **김일성**주석각하의 략전을 말이요. 뒤늦게나마 나는 위대한 그분이 내놓으신 사상을 받들고싶소.》

무케르지의 말은 절절하였다. 고등교육을 받은 로밀라가 그 말을 리해하지 못할수가 없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무케르지는 토론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아안고 전반사업과 함께 모든 문건들의 준비와 심의를 보기로 하였던것이다.

다음날 무케르지는 비상한 결심을 안고 대학의 넓은 강당의 연단에 나섰다.

지금 그의 심장은 생애에 일찌기 없었던 커다란 활력을 안고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위대한 사상의 진수를 너무도 늦게야 깨달은것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을 시대의 흐름에 좀더 이르게 합류시키지 못한 책임감이 무겁게 자리잡고있었다.

전교의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앉아 언제나 정열적이고 류창하던 부총장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기를 초조히 기다리고있었다.

《학생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고 **김일성**주석각하를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

나는 이 며칠동안에 자신이 한생을 바쳐 탐구해온 모든것을 주

체사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재생의 길을 걸을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

주체! 주체만이 우리가 갈 길이고 주체사상만이 우리가 지녀야 할 유일한 세계관이라는것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

연단을 내리려는 무케르지를 둘러싸고 학생들은 연방 의혹에 찬 질문들을 들이댔다.

그는 연단에 다시 올라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를 해설하면서 주체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그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는데 대하여 론증하였다.

학생들은 환성을 올렸다.

이 연단에 오르면서 무케르지는 40년동안을 이 대학에서 세계철학사를 론하고 정치경제학을 론하던 자기의 한생을 돌이켜보았다. 그 나날 그는 명예도 얻었고 직위도 얻었다. 하지만 그는 랭철한 판단을 내리였다.

나의 존재, 나의 명예, 나의 권위가 문제로 되여서는 안된다. 주체사상은 나 한사람에게만 속하는것이 아니라 전인류에게 속하는것이다. 인류를 해방하는 길에 내 무엇을 주저하랴.

그는 한생을 번지며 살아온 책장을 덮었다. 그는 간지스강물결로부터 태평양의 파도에까지 온 지구를 뒤덮어가는 주체의 노래, 시대의 새 노래를 듣고있었다.

이렇게 되여 무케르지는 자기의 지난날과 단호히 결별하였던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엄청난 결단이였다.

수십년간을 쌓아올렸던 《사상루각》을 깡그리 헐어버리며 파트나종합대학의 으리으리한 층계를 내리는 부총장을 수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바래웠다.

이 경이적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동시에 주체사상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계기로 되기도 하였다.

무케르지는 배웅하러 따라나오는 교수들과 제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며 절절히 말하였다.

《주체는 인류의 생명이요. 인류는 반드시 주체의 길로 가야 하오. 이것은 진리요.》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무게있게 사람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진정한 학자만이 내릴수 있는 용단이고 웨침이였다.

주체사상은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내렸다.

그는 60나이에 삶의 보금자리를 폈던 비하르주에서 뉴델리로 완전히 집을 옮겨왔다.

그의 앞길에 문득 나무들이 푸르러졌고 하늘이 더 높이 건듯 들리웠으며 세계는 황홀하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봄을 맞은 자연이 생기를 회복하듯이 그의 온몸엔 새로운 힘과 정열이 솟구쳐 올랐다.

참으로 강렬한 인간들이였다. 비슈와나스부부는 무케르지부부를 뜨겁게 맞이하였다.

주택이 마련될 때까지 무케르지부부는 지역연구소 청사로 장만한 집의 한방에서 살기로 하였다.

학회성원들의 이런 완강한 투쟁과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력사적인 시각이 왔다.

1980년 9월 6일.

뉴델리에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아시아지역 토론회가 성대히 개막되였다.

토론회장면을 보도한 인디아신문들을 보고 세계는 감탄했다. 그것은 토론회가 국회회의장에서 진행되였으며 그 회의장 500석에 참가자들이 꽉 차넘치였기때문이다.

그 회의장은 국회청사와 잇닿아있는 마부랑카르(인디아 첫 국회의장의 이름)회의장이였다. 원래 그 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쓰지 못하게 되여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주체사상연구학회에 있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내세워 그들의 이름으로 그 회의장을 당당히 리용하였던것이다. 정계에 그의 인맥은 뻗어나가고있었다.

이 대회에서 무케르지가 한 보고 《주체사상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위대한 사상》은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을 높이 칭송하였으며 그이께 삼가 올리는 편지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주체사상의 열풍은 대륙을 휩쓸고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토론회 2일날인 9월 7일 드디여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가 자기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얼마나 고대해온 이 순간인가.

비슈와나스의 가슴은 한없는 기쁨으로 설레였다. 이 시각 그의 마음은 위대한 스승에게로 달려가고있었다.

그전해 9월 15일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은 석상에서 비슈와나스는 삼가 말씀을 드리였다.

《주석각하! 저는 앞으로 주체사상에 관한 아시아지역 토론회를 열고 거기에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창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석각하의 주체사상을 아시아지역에서 더 빨리, 더 잘 보급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

지금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 꽉 차흐르는것은 위대한 스승께 올린 결의를 드팀없이 수행했다는 그 환희의 감정이였다.

돌이켜보면 조선과의 외교관계가 설정되기 이전부터 조선령사관에 혼자 드나들면서 접촉하고 공감하기 시작한 주체사상이였다. 하지만 오늘은 주체사상을 따르는 길에 나라와 대륙의 많은 사람들이 대오를 이루어 발걸음을 맞추게 되였고 그 연구조직들이 세계적범위에서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으니 이것은 분명 삶의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지역연구소 창립대회에서는 마니크 랄 쉬게스타(네팔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가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의 창립은 자주, 독립, 새 사회건설을 위한 아시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라는 제목의 보고를 하였으며 토론회에 참가하였던 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대회에서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창립선언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자!》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창립대회에서는 무케르지가 연구소 리사장 겸 소장으로, 고빈드가 서기장으로 선출되였다. 연구소의 지도기관은 리사회였는데 리

사들로서는 지역의 각 나라에서 1명씩 선출되였다.

파키스탄에서는 아브둘 말라크가 리사로 선출되였다. 그는 이미 몇해전에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를 결성하고 그 서기장으로 활약하고있었다. 그는 또한 파키스탄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카라치위원회 서기장이기도 하였다.

인간은 자기의 성장을 느낄 때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것인지도 모른다.

무케르지는 한 나라 한개주의 학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십개나라가 자리잡고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의 연구소 《사령관》으로 성장하였고 고빈드는 한 나라의 학회 회원으로부터 제일 큰 그 대륙의 연구소 《참모장》으로 성장한것이다. 아브둘 말라크 역시 한 나라의 범위에서 벗어나 대륙의 연구조직의 사업에 참여하는 《참모》로 승진한것이다.

그들자신도 기뻐했지만 비슈와나스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모든것이 계획대로 실현되여가는 기쁨이란 이루 말할수 없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가슴뿌듯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있었다.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가 창립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디아인민들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인사들로부터 축하편지와 축전들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륙을 대표하는 주체사상연구소로서는 이미 1978년 2월 18일에 꼬스따리까의 수도 싼 호쎄에서 창립된 라틴아메리카지역연구소가 있었고 아시아지역 연구소가 2번째였다.

세계인구의 근 50프로가 살고있는 아시아대륙을 대표하는 주체사상연구소의 창립은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연구소청사의 정문에는 힌두어와 영문으로 쓴 글발이 눈부시게 안겨왔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비슈와나스는 정부에 연구소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이 현판을 내걸었던것이다. 그것이 비슈와나스의 성격이였고 일솜씨였다.

원래 인디아에서는 주택지구에 공식사무소를 두지 못하게 되여있었는데 비슈와나스가 앞으로 옮길것을 전제로 하면서 완강히 내밀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냈던것이다.

구속없는 자유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이루어지는것이였다. 사실 인간의 세계에는 법이외의 자유가 없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자유란 법적허가밑에서 행동하는 권리라고 할수 있을가.

비슈와나스는 자기가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기때문에 모든것을 떳떳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세상에 소리를 내면서 하고싶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앞으로 사무소를 공공건물에 따로 내올 작정이였다. 하지만 현재는 우선 조직을 내오고 일할만한 곳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작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물론이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모든 일은 시작을 빨리 떼고 볼판이였다.

이렇게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는 탄생하였다.

인디아의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위대한 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길에 나서게 되였다.

비슈와나스!

그는 주체의 씨앗이 뿌려져 나날이 무성해가는 넓고넓은 그 숲의 한가운데서 줄기줄기 뿌리를 뻗어내리는 거목처럼 말없이 서있었다.

3. 자식을 키워서…

비슈와나스의 가정은 화목하였다.

언제나 바깥일에 돌아가는 그에게 있어서 가정의 화목은 정말로 행복의 열쇠였다.

재물이 많다고 하여 어느 집이나 다 화목한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그 재물로 하여 싸움이 그치지 않는 집들이 많은것이다.

옛날부터 가정이 화목하면 재산도 부럽지 않고 바깥일도 잘된다

는 말이 있다.

가정에 화목이 넘치게 하자면 우선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잘 키워야 한다.

아무리 자식들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해도 어릴 때부터 그들을 부단히 다듬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구인들 비뚤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있으랴.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으려거든 낳지 않는것만 못하다고 하는것이다.

두르가데비는 집안의 한복판에서 줄줄이 태여나고 태여나는 샤르마가문의 자손들을 부단히 다독여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고있었다.

80고령에 이른 그는 다소 허리가 굽어들긴 하였지만 아직 정정한 몸으로 모든 일을 돌보고있었으며 더우기는 건전한 정신으로 집안의 평화로운 조화를 잘 조정하고있었다. 어머니가 된 후에도, 할머니가 된 후에도 신문과 책을 계속 읽고있는 그의 모든 말마디들은 사리가 정연하였다.

그래서인지 비슈와나스의 형제들은 물론 련줄련줄 늘어나는 그 후손들도 서로 다투지 않고 모두가 자기의 기업을 착실히 해나가며 살아가고있었다.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배운다.

두르가데비는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욕하지 않고 사랑으로 일깨워주군 하였다. 언제나 그는 성을 내지 않고 리해되도록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자식들이 다 커서 부모가 되였을 때에는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부리지 말라, 그러면 애들이 부모의 말을 안듣는다, 알기 쉽게 가르쳐주어야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고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두르가데비는 참으로 유순했는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나쁜 말을 했을 때도 당신말이 옳을수도 있다고 말하군 하여 그가 나쁜 마음을 고쳐먹게 하군 하였다.

부모가 착해야 효가 난다.

두르가데비의 선천적인 그 선량함과 자비심이 어디에로 흘러들었으랴.

비슈와나스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교양을 잘 주고 교육도 잘 주고 행동할바를 다 잘 가르쳐주었기때문에 자기가 오늘같이 될수 있었다고 말하고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아침에 받은 인상은 그처럼 깊은 흔적을 가슴에 남기는것이다.

자식을 잘 키워서 세상에 떳떳이 내세우고싶은것은 모든 부모의 념원이다.

비슈와나스의 형제들은 모두 뉴델리에서 살고있었다. 맏이가 수도에 든든히 자리를 잡은 후 그의 동생들도 련줄련줄 뉴델리로 올라와 자기의 기업들을 꾸려나갔던것이다.

그들중에는 출판업자, 택시업자도 있었고 치솔부터 구두솔에 이르기까지 각종 솔을 생산하는 기업주도 있었다.

두르가데비는 이 모든 자식들의 집을 돌아보며 서로서로 도와주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미리미리 주의를 주었으며 잘 조정하여나갔다. 독립적으로 다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있는 비슈와나스의 형제들사이에는 조용하였다.

모두가 어머니를 어릴 때처럼 따랐으며 좋아하였다. 이럴 때 보면 역시 가문에는 늙은이가 있어야 했다.

비슈와나스에게도 여섯자식이 있었고 또 그 후손들이 태여나기 시작했으니 세월과 함께 갈래갈래 불어나는 샤르마가문의 수는 아리숭할 정도에 이르렀다.

비슈와나스의 자식들도 모두 어려서부터 이 할머니가 시중을 들었다. 또한 싼또쉬 꾸마리도 자기 계렬의 엄격성으로 자식들을 키워갔다.

비슈와나스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와 자식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았다.

맏딸과 첫째, 둘째아들은 이미 시집장가를 간 상태였다.

맏딸 닐람은 델리종합대학을 나온 후 인차 어느 한 피복회사 사장에게 시집을 가 벌써 아들형제와 딸을 낳고 잘살고있었다. 조선대사관 앞거리에서 살고있는 그는 멀지 않은 본가집으로 부모를 뵈오려 드문히 오고있었다.

맏아들 안일 샤르마는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배짱이 셌다. 델리종합대학과 런던경제학교를 나오고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있는 그는 장차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할 사명을 지니고 《인터라즈》의 경영국장으로서 솜씨를 보이고있었다.

안일 샤르마는 활동범위도 넓었다. 그는 정부의 많은 관리들과 교제하고있었으며 라지브 간디와는 가까운 친구사이로서 자주 오가고있었다. 처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온 라지브 간디를 비슈와나스는 아들과 함께 가정적분위기속에서 마주앉을수가 있었다.

이딸리아녀자인 라지브 간디의 처는 쏘냐 간디라고 불렀다.

그들에게는 년년생인 두 남매가 있었다. 맏아들의 이름은 라울 간디였고 맏딸의 이름은 프리얀카 간디였다.

라지브 간디는 얼굴생김새가 단정하였다. 그는 자기 어머니(인디라 간디)와도 사업련계가 깊은 친구의 아버지를 존경하였다. 미구의 수상인 그는 당시 비행사였다.

비행사답게 시원시원한 그는 비슈와나스가 초청하는 식사에도 여러번 참가하여 주체사상신봉자들과 마주앉아 허물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것은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좋은 일이였다.

맏아들은 그쯤하면 자기의 사회적위치를 차지하고 자기 갈길을 가고있는듯싶었다.

그와 결혼한 쑤쉬는 시집을 와 련줄 딸만 셋을 낳아 얼굴을 붉히고있었으나 두르가데비와 비슈와나스내외는 아이들을 무척 고와했다.

둘째아들 쑤닐 샤르마는 모스크바종합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거기에서 2년간 또 로어를 배웠으며 그다음에는 모스크바종합대학의 공학 및 기술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하고 귀국하였다. 서양물을 먹어서인지 그는 머리가 노란 처녀를 데리고왔다.

그 처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였다.

왕의 이름을 본따면 그와 같은 호화로운 생활이 오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은것인지 그 처녀의 이름은 영국왕과 같았다.

한학급에서 류학을 같이 하였다는 그 처녀는 뽈스까태생이였다. 가문에 이국인이 들어오기는 처음이였다.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녀석이 멀리에서 녀자

를 데려올 때는 제나름의 생각이 있었겠지, 저희 좋다면 하는것이지라고 생각하였을뿐이다.

비슈와나스는 자기는 나쁜 아버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자식들이 18살만 되면 저하고싶은대로 하라고 내버려두기때문이였다. 그는 다 큰 자식들의 일에 시시콜콜이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부모들이 바란다고 하여 자식을 억지로 성공시킬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선생이 너무 엄하면 학생이 자립성을 잃는다.

비슈와나스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될수록 아이들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 가르치려고 했다. 대학까지 보내놓으면 자기의 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라는것이였다. 쓸만한 녀석은 충분히 그래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맏아들, 둘째아들도 자기들이 살고싶다는 녀자하고 다 살게 하였다.

부모라 해서 자식들에게 무작정 사랑을 강요할 권리가 있을가.

비슈와나스자신은 부모의 요구에 의해 결혼을 하였고 또 후회없이 잘살고있지만 보다 문명해진 오늘날에 와서 자식의 사랑을 두고 절대적으로 좌우지할수는 없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권유할수는 있어도 기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편안해지는것이다. 부모가 결코 살아주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비슈와나스는 모두에게 사랑의 자유, 결혼의 자유를 주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둘째는 《영국왕》과 결혼하였다. 그들은 곧 뉴델리의 남쪽지역에 면적이 400평방되는 3층짜리 독집을 짓고 딴살림을 폈다.

공학을 공부한 그들부부는 전자제품의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쎈터를 차려놓고 모스크바에 자주 드나들고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몸에 맞았다.

그들에겐 오누이쌍둥이가 태여났다.

그들가족은 뽈스까려권을 가지고있었으며 뽈스까국적도 2중으로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와 여름휴가때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뽈스까로 갔다. 그때마다 비슈와나스는 그들에게 주체사상

을 해설한 소책자들을 가득 지워보내군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뾜스까에 공식적인 연구조직은 없었다. 물론 지금은 활발하게 움직이고있지만.

비슈와나스는 쑤닐부부에게 우선 쌍둥이 외가집부터 주체사상을 알게 하고 그다음 그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선전하게 하라고 하였다. 일정한 시일이 지난 다음 자기가 와르샤와에 가서 소조를 내오겠으니 미리 그 터를 닦아놓으라는것이였다.

쑤닐부부는 그 령을 집행하느라고 부지런히 노력하였다.

비슈와나스는 그 선을 놓지 않고 뾜스까에 대한 《공격》을 끈질기게 내밀고있었다. 계속 아들, 며느리에게 소책자들과 조선을 소개한 사진자료들을 보내고 또 보내였다.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는것이다. 보내고 보내느라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되겠지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역시 그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리용할줄 아는 실천가였다.

그다음자식이 무케시 샤르마였다.

이 셋째아들도 델리종합대학을 나왔는데 그에게는 남달리 류다른데가 있었다. 말해보면 그의 지성은 높이가 벌써 달랐고 지켜보면 그의 행동은 폭이 벌써 달랐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다. 얼핏 보매 녀성적인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가 남자였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영국에 가 또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도 계속 책을 읽고 글을 쓰고있었다. 여러 나라의 기업경영학은 물론 주체사상에 대하여 대단히 흥미를 가지고 파고들고있었다. 다른 자식들은 책을 주며 보라고 하였지만 이 아들은 제절로 다 보고 또 다른 책을 요구하였다. 그러고도 책이 모자라 그는 또 제절로 조선대사관에 찾아가 책을 부탁하여 가져오군 하였다.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깨여나는지 몰랐다.

이 셋째는 인생의 첫걸음부터 보폭이 다르고 신들메가 든든하다는것이 확연히 알리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많은것을 말하고 토론하고 했지만 보다 많은것을 말없이 가슴에 안고 멀리 앞을 내다보고있는듯 했다. 리지적인

그 눈길이 그 모든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는 언제나 말을 차근차근 했지만 행동은 결단성이 있었다.

이 아들에게는 큰 믿음이 갔다. 그리고 기대가 컸다. 그리하여 비슈와나스는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되는 그에게 뭄바이에 있는 《인터라즈》의 지사를 통채로 맡겨주며 본사에는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권한을 주었다.

무케시는 갔다왔다 하면서 곧잘 운영해가고있었다. 그는 가장 작은 일거리도 놓치지 않고 붙잡았으며 가장 큰 일거리도 주저없이 달라붙었다. 그는 무서운 정열가였다. 부모가 기초를 마련해주었어도 그는 행운이 아니라 자기 노력을 믿었고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것을 가르쳤다.

운명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기 마련이다.

그의 기업은 덩지 큰 어미기업과 경쟁이라도 하는듯 쑥쑥 키가 커가는것이 알리였다. 비슈와나스는 내심 흡족하였다.

역시 아들의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주는것은 아버지뿐인듯싶다.

그다음 넷째아들 나비쉬 취바는 금방 델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런던으로 날아갔다. 혈기에 넘친 그는 붕— 떠서 장차 세계적인 기업을 펼 꿈을 안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산업이 발전하였다는 그 나라에 가서 터전을 잡으려고 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막지 않았다. 사람은 다 자기가 갈길이 있는것이다. 그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꺾지 않았고 그들이 생활의 체험으로 운명을 깨닫고 개척해나가기를 바랬다.

정말 넷째가 세계적인 기업을 펴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비슈와나스가 그에게서 바라는것은 다만 그를 통해 시대의 사상을 어느만큼 세계에 전파하게 되겠는지 하는것뿐이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막내아들 라쮀시 취바는 현재 델리종합대학 재학중이였다.

선친들이 그러했듯이 비슈와나스도 자식들을 모두 교육시키는데 관심을 두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으로 되게 하는 기본공정이였다.

이만하면 자식들을 모두 자기 궤도에 들여세워놓은듯싶었지만 실지 그들의 활동의 폭이 얼마만큼 넓어지고 그들의 지성의 키가 또

얼마만큼 커지겠는가 하는것은 아직 다 모를 일이였다.

이러한 때 무케시의 혼사문제가 제기되였다.

그것은 비슈와나스의 친구인 에취. 씨. 고얄로부터 시작되였다.

고얄은 기업을 하면서 사귄 친구였다. 그는 인디아의 공업도시의 하나인 판잡주의 라즈쁘라시에 있는 공구공장, 자전거공장, 모터찌클공장의 주인이였다. 이외에도 그는 강철공장, 우유공장 등을 가지고있었다. 《인터라즈》가 그의 상표들을 오래전부터 주문받아 제작하고있었다. 고얄회사의 모든 상표들은 아. 엠. 아이(인디아의 도로의 주인)라고 붙였다.

뉴델리에 왔다가 비슈와나스의 집에 들렸던 고얄은 무케시가 보이지 않자 어디에 갔는가고 물었다. 기업때문에 뭄바이에 갔다고 하니 그는 처녀가 있는가고 또 물었다. 찾는중이라는 말을 들은 그는 멀리 찾을것없이 자기의 딸과 하자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혼사문제때문에 온것은 아니였다.

고얄은 무케시를 알고있었지만 비슈와나스는 그의 딸을 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였다. 그것은 고얄이 머리가 좋고 사람됨됨이 또한 괜찮았던것이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일것이였다.

무케시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하는것이 우려되였지만 뭄바이에서 돌아온 그는 아버지가 하라면 하겠다고 선뜻 응하는것이였다.

역시 셋째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데가 있었다. 모두가 저들끼리 좋으면 그만이였는데 무케시는 그렇지 않았다. 사실은 그가 배우자선택에서 제일 까다로울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

아들들중에서 그만이 련애결혼이 아니였고 부모의 중매결혼이였다. 역시 그는 모든 운명이 아버지를 닮게 되여있는듯싶었다.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와 고얄은 쉽게 사돈간이 되였다.

고얄의 딸은 그때 펀쟈브종합대학 졸업반이였다. 키가 자그마하고 깜찍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그 딸은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결혼을 미루자고 하는것을 고얄이 강박하여 결국 결혼식장에 나서게 되였다.

그들의 결혼식은 요란하였다.

라즈쁘라시에서 며칠, 뉴델리에서 또 며칠…

비슈와나스는 이 결혼풍습을 오래전부터 달가와하지 않았지만 7일간의 결혼식은 허물수 없는 전통으로 굳어져내려오고있었다. 사돈측에서 이것을 더 장려하며 요란하게 례식을 차리였다.

결혼식은 조선대사관에서 참석한것으로 하여 이채로왔고 의의가 있었다.

무케시가 조선대사관을 통채로 초청하였던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오히려 아들이 고마왔다. 그것은 곧 자기의 마음이였던것이다.

조선대사관사람들은 이들의 초청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조선사람들이 뉴델리에서 300키로메터 떨어진 라즈쁘라시에까지 가서 축복해준 신부의 이름은 키란이였다.

키란!

웃을 때면 볼우물이 피여나는 귀여운 이 처녀가 장차 샤르마가문의 제일 막강한 대기업주의 현란한 부인으로, 대통령과 수상이 해외에 갈 때마다 동행하며 인디아의 리익을 대변하는 나라의 세련된 녀성활동가로 활약하는 인물이 되리라고는 그때에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세계를 아는 사람은 주체사상을 따르기마련이다.

키란이 장차 세계를 알고 주체사상을 알고 조선에 가고 오며 인디아의 녀성들을 자주의 길로 이끌어가는 인물이 되리라고는 더더욱 그때에 다 알수 없었다.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바라고 또 바랐다.

자식들이 커갈수록, 샤르마가문이 늘어갈수록 재물많은 이 집안에 깨끗한 넋이 깃들기를 그는 바라고 또 바랐다.

그 넋은 주체사상이였다.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위대한 그 사상의 빛발이 가정을 물들인다면 그 가정에는 화목한 웃음이 피여날것이며 나라를 물들인다면 그 나라에는 단결의 힘이 넘쳐날것이며 온 누리를 물들인다면 누리는 자유와 평화로운 세계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4. 위대한 사상에는 국경이 없다

태고적에는 풍운과 지각의 변동으로 하여, 인간이 발생하여서는 전쟁과 살륙으로 하여 이 땅덩이는 얼마나 자기 몸을 잘리우고 붙여지고 하면서 수십억년의 력사를 새겨왔던가.

그 나날 이 지구우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생기게 되였다.

서로 다른 지리적환경과 언어, 생활풍습으로 그리고 민족과 종족별로, 또는 사상과 종교, 리념 등으로 사람들은 서로 갈라져 자기나름의 나라를 세웠던것이다.

오늘의 세계정치지도는 단번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내려오면서 여러차례 변동되며 그려진것이다.

장구한 력사의 나날을 거쳐 오늘날에 와서 뚜렷이 새겨진 이 많은 나라의 국경을 이제 그 무슨 력사적근원이나 조건을 내걸고 침범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화근으로 될것이다. 세계의 평화는 바로 그 국경들을 서로서로 존중시하는데 있는것이 아닐가.

나라들사이의 국경은 민족마다 존엄을 걸고 지킬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오직 친선과 교류, 문화협조만이 국경이 없을것이다.

위대한 사상은 서로 다른 국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의 뜻으로 뭉치게 하는 가장 위력한 힘이다.

한때 맑스주의는 세계를 휩쓸었다. 그것은 맑스주의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시기의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였기때문이였다. 다시말하여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적해방의 조건을 밝힌 학설이 그 시대의 혁명학설로 되였기때문이였다.

시대는 달라졌다.

20세기 후반기에 와서는 주체사상이 온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자주를 지향하는 새시대와 력사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창시된 사상이기때문이였다.

다시말한다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전개하고 체계화된 학설은 현시대와 미래의 전 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되기때문이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의 탄생은 또하나의 그 뚜렷한 실례로 되는것이였다.

갓 태여났지만 지역연구소의 두리에는 많은 산하조직들이 결속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지역의 많은 나라들에는 이미 크고 작은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수많이 결성되여있었던것이다.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를 거점으로 련결되여있던 지역의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비슈와나스는 지역연구소에 결속되도록 조직사업을 해나갔다. 믿음직한 사람들로 지역연구소의 전임일군들을 꾸렸으니 일은 잘되여나갈것이라고 그는 믿어의심치 않았다.

비슈와나스는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 서기장으로 그냥 있었다. 인디아에서뿐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체사상 첫 전국조직으로 되는 이 학회의 연구조직망을 계속 확대하고 그 대오를 공고강화하는데 그는 여전히 힘을 집중해나갔다.

아시아적으로는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 차지하며 세계적으로는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있는 인디아땅에 주체사상의 숲을 이루게 하는것이 자기 조국만이 아닌 대륙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차지하게 되는 몫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그였던것이다. 때문에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는 세계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중추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였다.

실지 비슈와나스가 말없이 담당하고있는 몫은 참으로 큰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항상 지역연구소는 대륙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학회사업을 지역연구소사업에 복종시켜나갔으며 늘 지역연구소를 내세웠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그들은 모두 **김일성**동지의 제자, 주체사상신봉자들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지역연구소의 기관지를 내올것을 발기하였다.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지역연구소는 응당 자기의 얼굴이 있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좋은 제안이였다.

토론끝에 잡지의 제목을 《주체의 시대》라고 달기로 하였다. 원

고는 학자들과 신봉자들에게 매호 계획에 따라 분담하여 씌우고 편집은 지역연구소가 하기로 하였다. 출판과 발행은 물론 비슈와나스가 자진하여 맡았다. 그 비용이 적지 않았던것이다.

《주체의 시대》는 분기잡지로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한해에 4부씩 계속 발간되고있다. 잡지는 오늘 모든 대륙에 다 배포되면서 아시아지역연구소의 얼굴로 세계에 그 용모를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바빴다. 모두가 바삐 뛰였다.

비슈와나스는 다음달에 있게 되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더 많은 일을 하고싶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나라에 드리는 선물이고 그것이 또한 위대한 스승의 품으로 가는 길임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지역연구소를 내오긴 하였지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것이라고 생각되였다. 하기에 그는 학회성원들, 지역연구소성원들과 토론을 거듭하면서 일판을 벌려나갔다.

비슈와나스는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강의안을 만들었고 매일 수십통의 문건을 타자로 쳐서 인디아의 각지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띄워보냈다.

지역연구소성원들은 지역내의 나라들을 돌면서 주체사상전국토론회와 모임들에 출연하여 주체사상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해설해주기도 하였다.

20세기 인류앞에 혜성처럼 나타난 그 위대한 사상의 진리성과 독창성을 다 파악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있는 그들이였다.

1980년 10월초.

비슈와나스는 동료들과 함께 또다시 조선방문의 길에 올랐다. 비슈와나스는 벌써 5번째로 되는 방문이였고 무케르지와 고빈드는 2번째로 되는 방문이였다. 모두가 부인들과 함께 오고있었다.

모스크바를 경유해오는 동안 그들은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를 창설하고 일판을 크게 벌려놓은 기쁨을 안고 그들은 지금 조선으로 오고있는것이였다.

참으로 저마다의 진정할수 없는 추억과 새로운 기대를 안고 5대

륙의 정계, 학계, 사회계의 이름있는 인사들이 평양으로 날아오는 10월이였다.

비슈와나스는 평양에서 세계의 주체의 벗들을 또다시 만났다. 주체사상신봉자들과의 상봉은 해마다 감격적인것이였다. 하나의 지향과 사상, 리념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다른 대륙의 사람들과 맺어진 정이란 참으로 류다른것이였다. 만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후더워지는 국제적정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오가미 겡이찌와 한밤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국제연구소 초대리사장이였던 야스이 가오루를 못잊어하였다.

불치의 병으로 앓고있던 야스이 가오루는 그해 3월 2일 사망하였던것이다.

야스이 가오루는 병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록음테프를 올리였다.

《제가 마음속으로 위대한 동지라고 깊은 존경을 담아서 부른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김일성**주석각하이십니다.

참말로 **김일성**주석각하는 희세의 위인이시고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위대한 동지이십니다. …》

세계적인 학자의 그 진정의 목소리는 오가미와 비슈와나스,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가슴에 절절히 울리고있었다.

야스이 가오루는 오가미 겡이찌와 하가 쇼나이(유잔가꾸출판사 편집장)앞에서 유언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가 빛나는 팔목을 바라보며 남기는 그의 유언은 길지 않았다.

《아, **김일성**! 내 삶의 영원한 태양이시여! 이 시계를 벗으로 삼고 빛이 나게 오래 살고싶었는데.》

그가 오래 살며 그처럼 이룩하고싶어했던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였다.

그의 몫까지 다하여 주체사상연구보급에 전심해가려는 비슈와나스와 오가미 겡이찌, 전세계 신봉자들의 의지는 확고부동한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야스이 가오루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여 미망인인 야스이 다쯔꼬녀사앞으로 조전을 보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고인의 미망인과 자식들을 잊지 않으시고 평양에 부르시여 만나주시고 그들이 살아갈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스승, 위대한 인간의 그 의리심에 대해 오늘도 그의 후대들은 세상에 전하고있는것이다.

주체의 태양의 품에 안긴 생은 이처럼 영원히 그 품에서 빛을 뿜고있는것이였다.

그래서였다. 날이 갈수록 신봉자들의 대렬이 늘어가는것은 우선 그들이 주체사상에 스스로 공감되기때문인것이며 다음으로는 그 창시자의 위대한 인품에 매혹되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 체현하고 계시는 인간애야말로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근본바탕이라는것을 사람들은 생활속에서 깨닫게 된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평양에서 아브둘 말라크와도 반갑게 상봉하였다. 벌써 조선을 수차 방문한 그는 이번에도 많은 일을 하고 온것이였다. 그는 그사이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조직들을 파키스탄의 여러 지역과 여러 부문에 결성하는 성과들을 거두었었다.

자기 나라와 대륙들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을 안고 평양에 온 주체의 벗들을 만나게 되는것은 생활의 기쁨이였고 삶의 보람이였다.

조선에 도착하여 격동적인 나날이 흘러가는 가운데 드디여 영광의 시각이 왔다.

10월 10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그들은 초대되였던것이다.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 활달한 걸음새로 나오시는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일어서서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를 터치였다.

비슈와나스도 흥분된 격정을 터치며 힘껏 박수를 쳤다.

그 순간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처럼 뵈옵고싶던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는것이였다.

조선을 거듭 방문하는 과정에 현대조선이 이룩하고있는 놀라운 성과들의 뒤에는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령도의 손길이 있다

는것을 알게 된 비슈와나스였다.

주체사상의 심오한 철학적원리를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그이의 고전적로작들을 연구하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아안았으며 언제든지 꼭 한번 만나뵈오려는 결심을 마음속깊이 새겨가던 비슈와나스였다. 사진과 화면에서만 보아오던 그이의 준수하신 모습을 실지 뵈옵게 되는 비슈와나스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하시는 력사적인 보고를 청취하면서 비슈와나스는 흥분을 억제할수 없었다.

비슈와나스는 시종 두분의 위대한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이 시각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앞으로 더 큰일을 하고 꼭 그이앞에,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앞에 나서리라고.

비슈와나스는 대회가 계속되는 기간 도저히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는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 100만 근로자들의 시위를 보고 매우 감동되였다.

주석단에서 환히 웃으시며 군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이며 그이를 우러러 만세를 웨치며 파도처럼 흘러가는 평양시민들…

장엄한 화폭이였다. 그 화폭은 당의 위력과 불패의 통일단결을 힘있게 과시하는 승리자들의 자랑찬 모습이였다.

당과 대중의 불패의 일심단결을 과시하는 조선의 기상은 대집단체조 《당의 기치따라》와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에도 력력히 나래치고있었다.

이 세상 정치가치고 국민을 향하여 단결을 고창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없었다. 하지만 지도자와 인민의 완전무결한 단결을 이렇게 실현한 나라는 보지 못했다.

그 일심단결의 모습을 보려고 또 따라배우려고 세계의 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당수들이 평양으로 찾아오고있으며 위대한 사상을 안고 떠나가는것이였다.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조선의 모든 축전장들은 5대륙의 정계, 학계, 사회계의 명망높은 인사들이 수

없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더 흥성이는듯싶었다.

이 크지 않은 나라의 불패의 모습은 위대한 사상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산증거로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이였다.

그렇다, 위대한 사상에는 국경이 없다!

5. 판도리비비마을(2)

생활은 한갈래로만 흐르지 않는다.

인생이란 본래 천만가지로 엉킨 삶인것인지 누구나 남다른 개인의 생활을 안고있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인가싶다.

사람은 자기가 태여난 고향마을에 가면 령혼의 안정이 깃든다고도 하는데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는 고향의 령지가 골치거리였다.

그는 지금 마노하루와 함께 판도리비비마을의 령지를 돌아보고있다. 평양길에서 돌아와 학회사업과 《인터라즈》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처리한 후 그는 차에 두루두루 걷어싣고 곧이 령지로 급기야 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마노하루에게서 줄전화가 왔던것이다. 아마도 그는 비슈와나스가 귀국하기만을 기다렸던듯싶었다. 그는 올해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또 죽는 소리였다. 그들은 비슈와나스가 하는 일과 그앞에 쌓여있는 업무같은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또 그런것을 생각할 정신적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였다. 오늘의 세계를 모르는 그들은 멀리 지나간 세기가 내버려둔 사람들같았다. 밤은 이미 오래전에 밝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랜 잠에 취해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고향의 이 령지에 내려와 있었다.

조선에 갔다올 때면 언제나 집에서 기다려 반겨맞아주시던 어머니였다.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왔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니, 그래 너는 이제 무슨 일을 또 하려니 하면서 어머니는 묻군 하시였다. 그럴 때 어머니의 눈은 웃고있었다. 어머니의 그 물음에 하나하나 대답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은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행복의 시간이

였으며 그런 날들이 있어 새날은 지루하지 않고 밝아왔다.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싶었다. 날마다 이 세상의 새소식을 알려주며, 웃음만을 가득 안겨주며…

하지만 두르가데비는 아들의 이 마음을 알면서도 그가 오기 전에 어쩔수없이 집을 떠나 판도리비비마을에 가야 했다. 이 늙은이는 날마다 세상의 새소식을 듣고싶었지만 한자리에 그냥 그 본태로 누워있는 가문의 령지는 집요하게도 마지막까지 그의 발목을 붙잡고있었다.

특히 가을철엔 더했다. 늘어나는 후손들속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나오는 불협화음을 두르가데비가 애를 써가며 누잦히고있었다. 80고령에 이르렀어도 아직 정정한것이 다행이였다.

두르가데비는 어느 한해도 농번기때면 판도리비비마을에서 떠날수가 없었다.

풍작이든 흉작이든 그가 제때에 계산하여 모두에게 자기몫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분배해주어야 했다.

모두가 두르가데비앞에서만은 어쩌지 못하였다. 그것은 우선 그가 경우가 째이게 매 사람이 일한몫과 분배몫을 정확히 판별하였고 또 매 가정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주었기때문이였다. 이제는 그가 샤르마가문에서도 가장 나이많은 직계혈통의 증조할머니로 그 모습을 뚜렷이 하고있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단히 사고하는것이 그의 건강의 비결이였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되여가는 판인지 사리정연한 그의 사고, 그의 능력만으로는 가문의 이 령지, 이 친척들을 점점 구제하기 힘들어지고있었다.

고향마을의 친척들은 땅을 가지고도 후원을 하지 않으면 굶어죽어야 할 처지에 이를 때가 빈번했다.

그래서 비슈와나스와 해외에 살고있는 일부 친척들이 해마다 얼마씩을 내여 판도리비비마을을 도와주어야 했다. 허나 자기 힘으로 일떠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와주는것은 그야말로 겨우 먹여살리는데 불과한것이였다.

한곳에서 떠나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 대대로 물려오는 땅에 명줄을 걸고있는 친척들은 이 넓은 세상이 어떻게 변모되여가는줄을 몰랐고 세대가 바뀌여도 그저 그 땅에 명줄을 걸고 숙명으로 인생을 보내는데 습관되여있었다. 이들은 꿈같은 리상이라고는 한평생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였다.

곡식을 심을 때 세운 한해계획은 허사로 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농사는 해마다 지어야 하는것이다. 도시에서 친척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저 도와달라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모두 옛시대의 색날은 사진에서 뛰쳐나온듯한 모습이였다. 곡식창고가 비여있는 이들에게는 부끄러움도 체면도 없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불만족하면 하늘땅을 모두 욕하였다.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낡은 세습에 대한 노예적태도가 그들에게는 농후하였다.

세월은 빨리도 발전하고있는데 그들은 구태의연하였다.

인디아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하늘땅차이였다.

북부, 남부, 서부지역은 그래도 자체의 경제력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동부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동부지역은 벌이 많은 농촌지대로서 많은 경우 날씨에 의거하여 살아가고있었다. 가물과 홍수를 만나면 그해 농사를 망치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다. 자연의 희롱이 점점 심하여 때없이 강한 폭풍이 부는가 하면 큰물과 폭설로 하여 재해가 들이닥치군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뚫고나갈 타개책보다도 모든것을 운명의 신에게 맡기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습관된 사람들이였다.

그들자체가 자기들을 전지전능하신 신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있었으니 그런 숙명적인 사고를 할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도시에는 뚫고들어갈 힘이 도저히 없었다. 또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계절로동자들이 여기저기로 이동하고있었다.

준대륙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의 땅에 구시대와 신시대의 계선은 너무도 오래 그어져있었다.

그래도 그 계선을 부지런히 오락가락하는 세대들이 있다는것은 천만다행이며 언젠가는 그 계선이 희미해질 그런 날은 반드시 올것이였다.

하지만 그런 날은 과연 언제일런지.

령지가 가문의 자랑이였던 조상의 시대는 멀리 물러갔다. 아마도 그 자랑은 족보에나 남아있고 후손들의 입에서나 미화되여오르려는지 실제적으로는 그 땅으로 하여 세월이 갈수록 가문의 의견상이가 점점 분분해졌고 따라서 비슈와나스는 계속 거기에 신경을 써야 했고 또한 그들을 돌보아야 했다.

자기 갈데로 가라고 내버려둘수도 없었다.

천만가닥으로 엉킨 인생의 삶에서 자기 인생 한가닥만 따로 챙겨가질수 있는가. 더우기 가문의 장손으로서 그 땅을 세습적으로 물려받아 관리할 《의무》와 《권리》를 지니고있는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이 령지에는 어린시절의 발자취가 스며있고 함께 뛰여놀던 할아버지계렬의 형제들이 살고있으며 더우기는 어머니가 늘 그 땅을 돌보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있는것이였다.

누구든지 가문의 이 땅을 지켜내야 했다.

비슈와나스의 부모들은 농촌에서 살면서 근대문명의 물결을 따라 자식들에게 신식교육을 주었지만 령지를 다스리는 자식은 두지 못하였다. 아니, 신식교육을 받았기때문에 자식들이 모두 농촌마을을 떠나간것인지도 모른다.

비슈와나스 역시 자식들에게 현대의 최고고등교육을 주었지만 그들은 가문의 령지나 농촌마을에는 모두 흥미를 가지지 않았고 가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문제였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비슈와나스가 눈을 뜨고있는 동안은 그가 가문의 이 령지, 이 친척들을 돌보아야 했다. 잘나도 못나도 고향은 고향이였다.

가문의 이 령지를 돌아보는 비슈와나스의 머리는 착잡하였다. 점점 척박해지는 땅, 비바람에 움푹 패여진 골, 무성한 잡초들…

어찌 그렇게 되여가지 않을수 있으랴. 세월은 흐르고 날씨는 점점 사나와지는데 사람들은 그냥 토법에 매여달리고있으니…

아예 이 땅을 몫몫이 나누어주고말가?

그렇다면!

그것은 내 대에 버리겠다는것과 다름없는것이다. 설사 그렇게 해서 모든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땅을 길들일수 있겠는가.

문제는 이 땅도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기름지우게 해야 하는것이다.

이 땅이 대대로 내려오며 가문을 먹여살려주지 않았는가.

땅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있을수 없다. 하기에 농사일을 사랑해야만 모든것이 점점 좋아질수 있는것이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은 틀림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국민이 땅을 사랑해야 한다.

비슈와나스는 줄곧 생각을 굴리였다.

그의 속마음을 알리없는 6촌형은 그냥 말하고있다.

《자네 이번에도 좀 도와달라구.》

물론 도와는 주겠지만 장차 이 땅을 어떻게 일떠세워야 한단말인가.

각자는 자기 노력의 열매를 걷게 된다는것을 이 사람들은 아직 리해하려고 하지 않고있었다. 차례진 운명에는 순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관이였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속에서도 주체의 원리가 인생의 좌표로 될 때 결코 척박한 땅은 없을것이다.

마노하루는 바로 곁에서 무엇이라고 계속 말하고있었지만 비슈와나스의 귀에는 더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나가야 할것이였다. 마노하루는 여기서 가문의 령지를 유지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있었지만 일은 점점 더 헝클어져가고있었다. 령지를 가꾸고 령지에 매달려있는 친척들을 하나로 통솔하기에는 이 세상

을 돌아본적 없는 마노하루의 눈이 너무 어두웠다.

그 눈을 틔워주어야 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숙명을 박차고 나가고있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숙명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있는것이였다.

풍부한 인적, 물적자원을 가지고있는 이 나라의 도시들에는 현대문명의 밝은 빛이 다투어 비쳐들고있었지만 이 나라의 농촌들에는 여전히 봉건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있었다.

판도리비비마을, 이는 인디아농촌의 축소판이였다.

6. 죽음을 각오하고

《아브둘 말라크선생, 요즘 좀 피곤해하는것 같은데 보태쓰십시오.》

쪼물짝하게 생긴 두 괴한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며 두툼한 돈뭉치를 내놓는다. 이 작자들은 틀림없이 남조선괴뢰들과 한짝이 되여 돌아가는 반동놈들이였다. 제법 제낀옷을 걸치고 넥타이를 두른 놈들은 교활한 삵의 웃음을 짓고 무엇이라고 계속 씨벌여대고있었다.

놈들의 말대로 아브둘 말라크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었다. 직업적인 사상가로 활동하고있던 그는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많은 제약을 받고있었다.

현실속의 사람들은 사상이 같지 않았고 행동이 같지 않았고 모두가 제가끔이였다. 이런 속에서 아브둘 말라크는 한번 택한 주체의 길을 흔들림없이 꿋꿋이 걸어갔다.

그는 몇달전부터 탐문하던 푸른색옥돌을 얼마전에 구하여 조선에 보냈다. 그 푸른색옥돌은 이제 주체사상탑을 떠받드는 영원한 하나의 고임돌이 될것이였다. 그 고임돌이 되여 자기들의 삶이 주체사상탑과 더불어 세세년년 전해진다면 이 세상에 더 바랄것이 무엇이랴.

아브둘 말라크는 이런 사람이였다. 이런 사람이 어찌 굶어죽는다고 하여 자기의 신념을 몇푼의 돈에 줴버릴수 있으랴.

그는 이미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체사상탑에 얹은 사람이였다. 이제 그에게 죽음이란 없었다. 그는 이미 주체사상탑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 이어놓고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에 두려움이 무엇이랴.

생활난은 점점 그의 가정의 울바자를 좁혀오고있었다. 외국어학교에서 공부하는 두 아들의 학비를 친지들의 도움도 받고 빚도 지면서 간고하게 대가고있는 형편이였다. 그는 낡은 아빠트의 작은 두칸짜리집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아브둘 말라크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며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놈들은 이런 기회에 돈낚시에 걸어보려고 접어들었던것이다.

놈들의 돈은 절대로 받을수가 없었다. 자주위업의 승리와 조선통일을 지지하는 성스러운 길에 한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이상 그는 비록 거지가 된다한들 음모가들의 더러운 돈은 받을수가 없었다.

괴한들을 경멸에 찬 눈길로 바라보던 아브둘 말라크는 돈뭉치를 집어 그자들의 앞에 던지며 근엄하게 말하였다.

《물러가라.》

그러나 놈들은 물러갈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아브둘 말라크선생, 당신은 무슬림인데 사상운동에는 왜 나서오?》

제법 훈시하려드는 놈들이였다. 어처구니없는 이자들에게 한마디 해야 했다.

《나는 신앙량심으로, 민족량심으로 주체사상을 따르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무슬림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참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시대의 사상이라는것을 너희들도 알아야 해.》

《아브둘 말라크선생, 사람이 무엇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오.》

《나는 정견이나 체제를 보기 전에 위대한 인간을 보고 진리를 보았다. 위인을 따르고 진리를 지키는것은 인간의 감정이고 정의로운 일이다. 너희들은 나를 돌려세우지 못해.》

《그래 주체사상에서 돈이 나오오? 쌀이 나오오? 그러지 말

고 자.》
놈들은 돈뭉치를 다시 아브둘 말라크의 앞으로 밀어놓으며 접어들었다. 이자들은 사람보다도 더 귀중한것은 돈이며 돈의 힘으로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있는자들이였다. 하지만 력사는 결코 자기의 흐름을 그런자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돈으로는 인간의 정신을 살수 없으며 자주의 흐름을 막을수 없는것이다.
성격이 욱하는 아브둘 말라크였으나 그는 자제력을 잃지 않고 다시 말하였다.
《물러가라.》
그러나 괴한들은 그냥 앉아 씨벌여댔다.
《말라버린 나무는 영원히 죽고말지요. 인간도 죽으면 마찬가지요. 그러지 말고 자…》
놈들은 돈뭉치를 아브둘 말라크의 주머니에까지 찔러주려고 하며 바싹 다가들었다.
《살았을 때 향락을 누려야 한단 말이요.》
더는 참을수가 없었다.
인간쓰레기들! 이따위것들이 위대한 사상을 알면 온 우주를 얻는다는것을 설명했댔자 어이 알수 있으랴.
아브둘 말라크는 자기도모르게 일어섰다. 아무리 말했댔자 알아들을수 없는 이런자들에게는 다만 행동만을 보여주는것이 필요한것이였다. 그는 대뜸 돈뭉치를 놈들의 낯짝에 내던지며 웨쳤다.
《요 쬐꼬만것들이…》
비교적 체가 장대한 편인 그는 놈들을 이렇게 낮잡아부르며 걸상을 집어들었다.
《대가리를 깰테다.》
벼락같이 울리는 그의 웨침과 함께 걸상은 날아갔다. 놈들은 기겁하여 황급히 문밖으로 내뺐다. 용수철에 튕기듯 문밖으로 놈들을 따라나간 아브둘 말라크는 복도의 바람벽에 부딪쳐 마사져 떨어지는 걸상의 다리를 주어 또다시 놈들의 뒤통수에 대고 던졌다. 맞았는지 빗맞았는지 황황히 계단을 내려가는 놈들의 구두발자국소리가 아래층으로 멀어져갔다.

너무도 급격한 세례에 놈들은 미처 돈뭉치를 들고갈새도 없었다. 그것을 샤헤지드가 급히 들고나오고있었다.

《여보, 이것을.》

아브둘 말라크는 그것을 받아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았다. 놈들이 복도에서 허둥지둥 나오고있었다.

《야, 이놈들아.》

하늘에서 벼락같이 떨어지는 목소리에 놈들은 고개를 돌려 아빠트를 올려다보았다. 순간 두툼한 돈뭉치가 돌덩이처럼 그놈들의 머리우에 냅다 던져졌다. 그것을 주어든 놈들은 두고보자는듯이 주먹질을 하며 사라졌다.

《다른 일이 없을가요?》

샤헤지드는 불안해하였다. 놀란듯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우수의 빛이 력력히 비끼고있었다.

《일없소. 마음놓소.》

아브둘 말라크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때부터 샤헤지드는 하루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한 1977년부터 아브둘 말라크의 활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었다.

특히 그는 1980년 10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후부터 더욱 젊음에 넘쳐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었다. 그가 있는 곳마다에서 주체사상과 조선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김정일**동지의 로작연구모임, 사진전시회, 강연회, 출판회…

그의 활동은 점점 눈에 띄게 나타났다. 남조선괴뢰들과 우익분자들에게는 그것이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주체의 원리를 자기 나라의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그의 활동은 계속되고있었다.

놈들은 밤마다 전화를 걸어 협박을 가해왔다. 남조선괴뢰들에게 뭉치돈을 받아먹은 우익깡패들이 하는짓이니 언제 살해될지도 모를 일이였다.

샤헤지드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며 말하였다.

《얼마간이라도 피신해있는것이 좋지 않을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아브둘 말라크는 자기때문에 항상 걱정을 안고사는 안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사혜지드는 미인이였다. 가을호수처럼 맑고 별처럼 빛나는 한쌍의 눈, 부드러운 살결의 동그란 얼굴과 함함한 머리채…

순결하고 수심에 잠긴듯한 안해의 표정은 볼수록 아름답다. 수심의 그 그늘조차도 아름다움을 조금도 손상시킬수 없는 그 얼굴!

내가 왜 이처럼 선량한 녀인에게 불안을 주어야 하는가.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데 그 뜻이 있지 않을가.

아브둘 말라크는 차분한 성격인 안해의 긴 머리를 정겹게 쓸어주며 말하였다.

《난 절대로 피신을 하지 않소. 정의는 이기기마련이요. 날 믿소.》

신념이 있는 인간은 두려움을 모른다.

올테면 오라, 진리를 지켜 싸우다 죽으면 그이상 보람이 어데 있겠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운것이 하나도 없다.

죽음, 그것은 일개인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생존의 종식이지만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투쟁의 연장인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놀래우지 못하였다.

아브둘 말라크는 영예롭게 죽기는 할지언정 치욕스럽게 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무시로 걸려오는 전화종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전화선을 아예 끊어버렸다. 괴한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음모가 바로 그의 변두리에 감돌고있었지만 그는 주저없이 더 적극적으로 일해나갔다. 매일밤 늦게 들어왔고 들어오지 못할 때도 많았다.

샤혜지드는 매일밤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다. 일찍 들어와도 한밤을 마음놓지 못하고 지키는 녀인이였으니 남편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한밤을 불안에 싸여 지새웠다. 그는 미인이고 마음도 그 얼굴처럼 고왔다.

요즈음 아브둘 말라크는 여느때없이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탄생 70돐을 맞으시는 **김일성**주석께 그저는 갈수 없기때

문이였다. 그래서 그는 지금 4월 15일을 기념하여 전국적인 대학생주체사상토론회를 조직하려고 뛰여다니고있었던것이다. 그는 그 자랑을 안고, 그 기쁨을 안고 평양으로 가고싶었다.

당시 형편에서 전국적인 대학생토론회를 진행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여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큰 모임을 가지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3명이상 모이면 당장 감시속에 들어가고있었다. 또한 재정도 딸리고있었다.

하지만 아브둘 말라크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다. 동요없이 대담하게 토론회를 열어 주체사상과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 땅을 진감하게 하려고 마음다졌던것이다. 이미 여러가지 집회도 열었고 국제적인 련대성회의에 참가하여 열정적인 토론도 했으며 글을 써서 발표하기도 한 아브둘 말라크였다.

정의의 길을 한사코 반대하여나서는 반동놈들은 아브둘 말라크가 계획하고있는 이 토론회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코코에 막아나서고있었다.

그날도 샤헤지드는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집에 있었다.

어슬녘이였다.

불현듯 낯모를 놈들이 집에 뛰여들었다. 이 무뢰한들은 샤헤지드에게 주인이 어델 갔는가, 언제 오는가 등 이것저것 캐묻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하면서 한참동안이나 아니꼽게 놀아대다가 사라졌다. 정신적위압감을 주려고 협박전화도 자주 걸어오는 이 놈들이 무슨 짓을 꾸밀런지 그것은 모를 일이였다.

샤헤지드는 놈들의 이러한 행위를 한두번만 겪어본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지금 나라안의 정세가 복잡하다보니 놈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것만 같아 어쩐지 심상하게 여겨지질 않았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게 기다려지는 남편이였다. 이슬람교도녀자들은 외출을 잘하지 않으며 외출할 때는 보통 겉옷을 뒤집어쓰고 눈만 내놓고 다닌다.

자정이 퍽 지나서야 아브둘 말라크는 집에 들어왔다.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왔다가 그들은 곧 갔다. 보매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던듯싶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틀림없이 안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들어왔을것이다. 한밤을 뒤척

이며 잠못드는 남편을 보며 샤헤지드도 뜬눈으로 새웠다.

다음날 새벽 뜻밖에도 비슈와나스와 알따브 후쎄인이 기별없이 집에 나타났다.

아브둘 말라크는 깜짝 놀랐다. 라호르에서 여기까지도 먼데 뉴델리에서 여기가 어데라고?

카라치는 파키스탄에서도 남단의 맨끝 아라비아해에 위치하고있는 멀고먼 도시였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무척 보고싶었던 아브둘 말라크였다. 가장 큰 시련을 겪는 이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그 몇번이였던가.

하지만 그는 자기의 고민과 애로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않고있었다.

비슈와나스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그는 그저 일이 잘되고있으니 마음놓으라고만 하였다. 그것은 그가 뉴델리에서 진행되는 국제토론회준비때문에 여념없는 나날을 보내고있었기때문이였다.

국제토론회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회합인가.

아브둘 말라크는 자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것이 국제토론회를 도와주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이번 뉴델리토론회에 못갈지라도 여기서 파키스탄대학생전국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치르고 평양으로 곧장 갈 계획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각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것이였다.

알따브 후쎄인에게는 다만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을뿐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대로 항상 친구들을 생각하고있었다. 아브둘 말라크의 신변에까지 위험이 오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급기야 려권을 수속하여 국경을 넘었으며 오는 길에 라호르에 들렸던것이다.

자기 사업과 친구를 위해 살지 않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알따브 후쎄인도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것을 알고는 가만앉아있을수가 없었다. 특히 그는 변심없는 비슈와나스의 우애심에

감동되여 스스로 따라나섰다.

아브둘 말라크는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진실하고 열정적인 친구를 가지고있는 행복이야말로 이 세상에 비길데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주체의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참인간들이였다.

제때에 도우려고 벗들이 찾아온것이였다. 필요할 때 찾아온것은 여느때의 두배의 힘이 된다. 동정이 아니라 도와나서는자가 벗인것이다. 곤난할 때 벗이 진실한 벗이라더니…

이제는 됐다. 그들을 보기만 했어도 신심은 배가로 용솟음치며 모든 일은 다 잘될것이였다.

아브둘 말라크는 길게 기른 뒤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것은 그가 흥분될 때 하는 동작이였다.

아브둘 말라크는 그들에게 빨리 이 땅을 떠날것을 권고하였다. 살벌한 공기가 감도는 이 땅에서 그들이 무슨 변을 당할지 어이 알랴.

《자네 언제 그렇게 겁이 많아졌나, 죽어도 같이 죽읍세.》

웃으며 롱담조로 말하는 비슈와나스의 그 배포유한 모습은 여전하였다.

샤헤지드도 활짝 웃었다. 챠드라(이슬람교도부인들이 쓰는 긴 베일)를 살풋이 들고 선 그의 두눈이 기쁨으로 반짝였다.

이제는 마음이 놓였다.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날을 보내며 남편이 당분간만이라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있으면 안되는가 하는 속생각도 없지 않았던 샤헤지드였다. 인생이란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는것인지.

비슈와나스는 아브둘 말라크가 더없이 귀중해졌다. 그의 집안을 살펴보니 쪼들리는 생활이 알리였다. 낡은 아빠트의 2칸짜리인 그의 집에 가장집물이라고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좁은 집에 살고있는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넓고넓은 세계가 비껴있는것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자기의 친구인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하여 주체의 대오는 흔들리지 않는것이다.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여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서는 앉아있는 그

런 사람은 필요치 않다.

주체사상을 자기 나라의 현실에 구현하기 위하여 이처럼 죽음도 두렴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봉자로 될것이며 그런 사람만이 또한 국제토론회의 진정한 참가자로 되여야 할것이다.

아, 아브둘 말라크! 나의 친구여!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이 세상 한끝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기꺼이 찾아가리라. 당신같은 열렬한 신봉자, 진짜 친구가 세상의 모든 나라에 한사람씩만 있다면 내 기꺼이 이 세상을 돌고돌리라. 당신같은 친구가 대오를 이루면 인류의 자주위업은 훨씬 앞당겨지리니…

비슈와나스의 마음은 기뻤고 괴로왔고 격분했다. 이처럼 훌륭한 벗을 가지고있는것이 기뻤고 또한 이처럼 훌륭한 인간이 마음고생을 하고있는것이 괴로왔고 이처럼 훌륭한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격분했다.

그는 팔걷고 나섰다. 그는 사방에 전화를 하며 카라치의 관료들을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였다. 해외에 《인터라즈》의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있는 비슈와나스는 이 땅에도 그 리해관계를 던져주며 그들과의 교섭을 해나갔다.

인디아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은 남아시아의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이며 특히 파키스탄과의 관계정상화에 힘을 넣는것이였다. 때문에 나라의 견지에서 놓고볼 때에도 비슈와나스는 파키스탄과 하는 자기의 이 교섭이 합당한것으로 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알따브 후쎄인은 말없이 자책을 받았다. 주체사상을 인정은 하면서도 그는 이들처럼 운명을 걸고 이 길에 나서지는 않고있었던것이다.

확실히 주체사상은 세월과 더불어 사람들의 심장속에 강렬한 생활의 불씨를 심어주고 그 심장을 활활 불태워주는 인간사랑의 참사상이였다.

그도 비슈와나스를 따라 시의 관료들을 만나며 사태를 수습하는데 합세했다.

라호르의 변호사인 알따브 후쎄인은 최고재판소가 조직하는 변호에도 자주 나가고있었으므로 국내에 그 이름이 알려져있었다. 이

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카라치의 해당 관료들이 주체사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리해를 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데까지 이르렀다.

신봉자들의 활동은 헌신적이였으며 그들의 관계는 혈연적이였다. 그들이 신봉하는 주체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도 모르게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주체의 인간으로 새롭게 태여나게 한것이리라.

주체사상신봉자들모두는 동지를 위해, 하나의 리념을 위해 이처럼 눈물도 웃음도 함께 나누며 시련을 헤쳐가고있는것이였다.

벗들의 후원에 더없이 고무된 아브둘 말라크는 배가의 힘으로 일떠섰다. 그는 비슈와나스에게 청년주체사상신봉자들을 소개하였다.

자베드 안싸리를 비롯한 호감이 가는 대학생들이 당장 그의 눈에 들어왔다.

비슈와나스는 자베드 안싸리에게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모이게 하였다. 그다음 그는 그들에게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고 느낀 소감이며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꾸밈도 보탬도 없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이야기했다. 또한 주체사상의 진수와 생활력에 대해서도 실례를 들어가며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그들속에는 반동들의 작간에 넘어가 일시적으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있던 청년들도 있었다. 무슬림들인 그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있는 리해를 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반동들이 선전해오던것처럼 교리를 해치는 사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그야말로 아주 좋은 사상이였다. 또한 그 사상의 창시자가 그처럼 인간을 존중하시는 위대한 성인임에랴.

비슈와나스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년 푸른 오동이 아니라 사철 푸른 송백이 되라.》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인간적으로 소탈하며 리치적으로도 옳은 말을 하는 그를 지지했다.

그들은 너절한 행동을 질시하는 비슈와나스의 신사적이고도 과감한 성격이 맘에 들었으며 더우기는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의 태도가 아주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이 젊은이들과 허물없이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많

은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투쟁속에서 우정을 맺었고 투쟁속에서 주체의 대하에 합류하였다.

누구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갈수는 없으며 흘러간 나이는 그 나이의 사람들과 휩쓸리면서 다시 체험해보게 되는것이다.

앞으로 주체의 대는 젊은이들에 의하여 이어질것이였다. 그래서 그들이 더없이 귀중했다. 무성하게 자라나는 주체의 새 세대들을 위하여 그는 사는듯싶었다.

눈보라를 헤치고 싹은 돋기마련이다.

찬바람속에서도 태양의 빛을 따라 새롭게 솟구치는 주체의 싹들을 찾은 기쁨을 안고 비슈와나스는 뉴델리로 돌아왔다. 국제토론회를 눈앞에 두고 더 지체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카라치를 떠나면서 비슈와나스는 나라가 분렬되여 제각기 흩어지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날에 알따브 후쎄인이 하던 말을 되뇌이였다.

《헤여질수 없는 우리들이지.》

《그럼! 헤여질수 없는 우리들이지.》

세 친구는 손을 굳게 잡았다.

비슈와나스는 알따브 후쎄인에게 좀더 여기에 남아서 뒤일을 보아줄것을 부탁하였다. 그것은 반동놈들의 책동이 이것으로 그친다고만 볼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알겠네.》

알따브는 쾌히 응하였다. 그는 여기서 토론회를 하는것까지 보고 가겠다고 하는것이였다. 드디여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아브둘 말라크는 비슈와나스를 바래주며 평양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였다.

이렇게 되여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파키스탄전국대학생주체사상토론회는 카라치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아브둘 말라크의 정력적인 활동과 노력은 동료들의 방조속에 마침내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된것이였다.

신념으로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고 한길을 가는것이다.

7. 도전을 물리치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은 세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있었다. 그것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위업을 이으실 후계자께서 공식적으로 세계에 그 모습을 나타내시였기때문이였다.

조선에서의 후계자문제가 세계적관심사로 되고있는것은 그것이 세계자주화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새로운 젊음을 느꼈다. 그이를 모신 1980년대가 가슴벅차게 안겨오는것이였다. 그 가슴은 이렇게 속삭이고있었다.

이것은 사변이다. 이 사변은 틀림없이 세계를 주체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력사적사변으로 인류사에 전해질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마음속에 더욱 뚜렷이 새겨지는 그이의 영상을 지울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그의 소원은 그이를 꼭 한번 만나뵙는것이였다.

그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제도와 정견, 신앙과 계급적처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자주화의 기치를 온 세계에 휘날리기 위해서는 멀고 험한 길을 더 많이, 더 과감히 걸어가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 길에 더 큰 자국을 새겨놓고 그이앞에 나서겠다는것이 그의 진정한 마음속생각이였다.

그날을 향해 그는 뛰고 또 뛰였다.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세계적범위에서 진행하기로 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준비에 그는 여념이 없었다.

스웨리예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있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4차회의에서 비슈와나스는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인디아에서 전세계적인 국제토론회를 재차 조직할것을 제기하였던것이다. 그것도 전례에 비할수없이 가장 큰 규모에서 조직하자

는것이였다.

리사회에서는 비슈와나스의 제기를 토론에 붙이였다.

국제토론회조직은 품이 많이 들고 힘이 드는 일이였다. 하지만 믿음이 가는 비슈와나스였다. 우선 그에게는 이미 세계적인 국제토론회와 지역토론회들을 조직운영해본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인디아는 주체사상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좋았고 비슈와나스의 사회적인 영향력도 큰것으로 하여 그러한 대회를 치를만한 토대가 마련되여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오가미 겡이찌가 이를 적극 지지해나섰다. 그는 전해부터 국제연구소 사무국장사업을 하고있었다. 모두가 이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의 제기는 모든 리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결정되였던것이다.

주어진 시간은 1년이였다. 그는 국제연구소와 매일이다싶이 전화련계를 가지면서 동료들과 함께 각 지역연구소와 국내에서의 사업조직 등으로 분망한 나날을 보내였다.

성과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1982년에 들어서면서 비슈와나스는 토론회준비사업과 함께 도서, 사진전시회준비사업도 동시에 내밀면서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지역의 몇개 나라를 돌아보기 위하여 비행장으로 나갔다. 비행장 휴계실에서 비슈와나스는 뜻밖에도 인디아주재 남조선대사와 맞다들게 되였다. 그자는 알은체를 하며 비슈와나스에게 다가와 제법 상냥한 어조로 말을 건네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선생, 〈한국정부〉에서 선생을 특별히 초청하는데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열렬한 환대〉를 받을겝니다.

북한에만 가보고 조선을 다 알수 없지 않습니까.》

비슈와나스는 대번에 이마살을 찡그리였다. 남조선의 외교관리라는 작자들과는 만나는것자체가 기분이 나빴다. 이자들은 한동안 즘즛해있더니 또 무슨 발작이 난 모양이다. 아니, 그자들은 즘즛하고있은것이 아니라 바뀌는 대사들마다 비슈와나스의 일거일동을 시종 감시하고있는것이였다.

노기가 오른 비슈와나스는 그자에게 통짜로 말하였다.

《여보, 수천명의 시민이 학살된 광주의 피바다와 남조선땅에 욱실거리는 미군을 보러 가겠소? 다시는 내앞에 나타나지 마오.》

흐지부지없이 딱 자르는 비슈와나스의 말에 명색이 대사라는 자는 찍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사라지고말았다.

이자가 어째서 가만있다가 오늘 이러는가?…

혹시 이번 토론회를 어째보려고 하는것은 아닌가?…

어림도 없는 일이지, 어제날 보기 좋게 나딩굴었던 그 자동차의 주인이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마음속의 가속답판을 한시라도 늦추고있는줄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비슈와나스의 머리속에는 미국방문시 자기를 돌려세워보려고 항시 주위를 맴돌던 남조선요원들의 살기어린 웃음이 보여오기도 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경각성을 높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토론회날자는 하루하루 박두해오고있었다.

아시아나라들의 방문을 서둘러 마치고 돌아오는 길로 비슈와나스는 토론회장소를 보려고 갔다.

그곳에서는 토론회준비위원회성원들이 토론회장과 전시회장을 꾸리느라고 분주히 돌아가고있었다.

《수고들하오.》

날자를 앞당겨 돌아온 비슈와나스를 모두가 반갑게 맞이하였다.

《선생님, 준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있습니다.》

고빈드가 하는 말이였다.

《그래 다른 일은 없소.》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협박전화가 걸려왔댔습니다.》

《어떤 협박전화요?》

《토론회를 중지하지 않으면 폭탄세례를 받을줄 알라고 협박하는 전화였습니다.》

《비렬한 놈들, 아무래도 놈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소. 우리 경각성을 더욱 높입시다.》

《알겠습니다.》

비슈와나스는 토론회장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고빈드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토론회장을 옮기는것이 어떻소?》

《예? 어디로 말입니까.》

《정부회의장으로!》

《그 회의장이야?!…》

고빈드는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았다. 원래 정부회의장은 정부의 중요행사만 하는 장소로서 그 누구도 개별적인 사람들이 물리지 못하는 곳이였다. 세계의 그 어떤 행사든 이 회의장만은 쓰기 힘들었다. 아무 나라에나 국회의사당만은 대체로 그렇게 되여있는것이 상례인듯싶다. 이 모든것을 잘 알고있는 고빈드였다.

선뜻 대답 못하는 고빈드에게 비슈와나스는 말하였다.

《정부회의장은 내가 해결하겠소. 그러나 아직은 아무말 하지 말고 제꺽 옮길 준비만 잘하고있소.》

그 이후 비슈와나스는 수상을 찾아가 공식 요청하여 정부회의장을 쓰도록 승인을 받았다.

당시 수상은 다시 인디라 간디가 하고있을 때였다.

1977년 국회선거에서 패하여 정권에서 물러났던 그는 1980년 1월에 다시 수상으로 취임하였던것이다.

일시 자기의 정책에서 범한 과오로 하여 인민들의 지지를 잃고 정권에서 물러났던 그가 다시 수상직에 올라 인기를 되찾은것을 보면 역시 그는 보통 녀사는 아니였던듯싶다.

비슈와나스와 인디라 간디는 직무상에 앞서 리념상으로 보나 그 전날의 친분관계로 보나 그만한 요구를 할만한 사이였고 또 그만한 요구를 들어줄만한 사이였다.

이렇게 되여 정부회의장이 자기의 높은 문턱을 세계의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내여주게 되였다. 이것은 수상과 비슈와나스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기도 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자주화의 물결이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서게 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4월에 이르러 토론회를 주최할 국제연구소 성원들과 각국의 대표단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토론회개막을 24시간 앞두고 비슈와나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국제토론회는 정부회의장에서 하게 되였습니다. 이제부터 정부회의장을 토론회장으로 꾸리는 일에 착수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 청사에 도서, 사진전시회장도 꾸려야 하겠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지만 모두가 달라붙으면 이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기가 났다. 그들은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려 한다는것을 알았다.

사실 비슈와나스가 토론회장소를 제일 급수높은 정부회의장으로 옮긴것은 단순히 토론회를 크게 하자는데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반동들의 책동이 심해질수록 그놈들에게는 본때를 보여주며 참가자들에게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와 그 위업의 후계자를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자는데 있었다.

도전자들의 기미를 가깝게 느낄수록 그에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힘은 배가로 증폭되고있었다.

사람들은 곧 정부회의장으로 가서 일에 착수하였다.

주석단정면에는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지고 정면우측에는 토론회마크가 걸리고 회의장 량쪽에는 구호판들이 그리고 회의장안팎에는 토론회명칭을 쓴 글자가 보기 좋게 자리를 차지했다.

전시회장도 새롭게 꾸려졌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사업을 토의하시는 사진을 전시회장중심에 모시고 그 좌우에 사진들을 전시해놓았으며 그앞에 도서들을 진렬해놓았다.

주체사상국제토론회의 개막과 함께 문을 여는 이 전시회는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맞는 명절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켜주는것이였다.

이런 속에서 4월 9일 새날이 밝아왔다.

토론회가 열리는 정부회의장은 명절분위기로 설레였다.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옷들을 차려입고 정부회의장의 높은 문턱을 스스럼없이 넘어서고있었다.

역시 어떤 장소에서 하는가에 따라 회의급수와 분위기는 달라지는것이였다.

국제토론회에 참가하는 나라와 대표단의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있었다. 이것만 보아도 주체사상에 대한 세계적관심이 날로 커가고있다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는것이였다.

1976년 안따나나리부토론회에는 50여개의 나라에서, 1977년의 평양토론회와 1979년의 뉴델리토론회에는 70여개의 나라에서 근 100개의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했다면 이번 1982년의 뉴델리토론회에는 107개 나라와 5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132개의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한것이였다.

이것은 자주화에로 나아가는 세계의 흐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것이였다. 세계의 이목은 또다시 뉴델리에로 집중되였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5차회의에서 국제연구소 부리사장으로 선거된 이노우에 슈하찌가 첫날회의 의장직을 맡아 훌륭히 운영하였다. 당시 리사장은 결원이였다.

일본 릿교대학 경제학부 교수인 이노우에는 맑스주의정통파로서 알려져있었지만 새로운 시대의 사상을 접한 후에는 일약 방향전환을 한 능력있는 학자였다. 맑스주의에 도통한 그만큼 그는 누구보다도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차 원리적으로 파악할수 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뒤늦게 주체사상신봉자대렬에 들어섰지만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게 된것이였다. 그의 학자적 능력과 조직적수완은 처음으로 참가하여 의장직을 맡은 이번 국제토론회의 연단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는것이였다.

세계의 이런 학자들, 이런 선각자들의 마음에 떠받들리여 토론회는 성과적으로 개최되여 자기 일정을 밟아나갔다.

토론회에는 세계에서 온 300여명의 대표들과 함께 인디아의 각계층 고위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 1 500여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회의주석단에는 인디아국회 하원의장 발 람 자카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당수들과 정부 요인들, 또한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 서기장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이노우에 슈하찌,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티. 비. 무케르지,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호쎄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가 앉았다.

원래는 인디아수상이 참가하게 되여있었는데 그는 방글라데슈 방문중이였다.

비슈와나스로부터 이 회의의 초청장을 받은 인디라 간디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여왔다.

《나는 주체사상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인디아정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국제토론회의 성과를 바랍니다.》

인디아국회 하원의장 발 람 자카르의 개회사에 이어 소개된 여러 나라의 정당, 정부와 주체사상연구조직들 그리고 개별적인사들로부터 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토론회의 국제적성격과 력사적의의를 부각시켜주는듯싶었다.

짐바브웨공화국 공보 및 관광상이며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행정비서인 나탄 엠. 샤무야리라가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불멸의 기치》라는 제목의 보고를 한데 이어 세계 각국의 많은 대표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인디아학생소년축하단이 북과 민족악기를 울리며 입장하여 랑독하는 축하문도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대회장이 떠나갈듯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활짝 웃는 소년, 소녀들의 모습은 자주화로 이어질 밝은 앞날의 모습이였다.

이 순간 주석단에 앉은 비슈와나스의 눈길은 객석의 맨 앞줄에 앉은 고빈드에게로 갔다. 전번 국제토론회때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이 축하단을 준비하느라고 걸음을 많이 한 고빈드였다.

고빈드는 지역연구소 청사에서 밤을 패며 일했다. 그전해에 무케르지가족이 벵갈사람들만이 사는 구역에 집을 하나 장만하여 이사한 다음 고빈드가족이 거기에 들어와 살림을 펴며 일하고있었다.

고빈드는 웃고있었다. 바로 이날을 위해 뉴델리교외로 뻗은 길을 얼마나 걸었던가.

웃고있는 고빈드는 회의준비를 위해 뛰여다니던 나날들을 보람있게 추억하는듯싶었다.

이 토론회에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인 고빈드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그전해 7월 14일이였다.

부인과 함께 조선을 방문하였던 고빈드는 그날 귀로에 올랐다.

평양상공을 날은 비행기는 쏘련령내에 들어섰는데 오후 5시가 되여오자 고빈드는 배를 그러안고 모지름을 썼다.

평양을 떠날 때부터 몸이 편치 않았던 고빈드였다. 평양의 외국인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하고 떠나라고 하였으나 그는 의사들의 요구를 굳이 거절하고 떠났던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체사상국제토론회준비가 더 바빴던것이다.

비행기안내원들은 급히 모스크바항공역에 무전을 날려 치료대책을 요구하였다.

어느덧 비행기가 모스크바에 도착하자 벌써 승강대옆에 구급차가 나와있었다.

그의 안해 푸라밀라가 괴로와하는 고빈드를 부축하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타들어가는 입술을 깨물고 배를 그러안은채 승강대에서 한걸음한걸음 내려서는 그의 정상은 참으로 보기 괴로왔다.

그러나 고빈드는 여기서도 또다시 의사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자기는 지금 감기를 앓고있는데 오늘밤 숙소에 가서 땀을 내면 래일 인디아에 가는 비행기를 탈수 있다는것이였다.

의사들을 돌려보내고 모스크바주재 조선대사관으로 왔을 때는 그의 병세가 몹시 위독하였다.

그러나 밤 11시에 쏘련의사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새벽에 의식을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구급차에 실려 모스크바 보뜨낀명칭 시립병원으로 후송되여갔다. 체온은 40도,

맥박은 120, 혈압은 알리지 않았으며 피검사소견은 심한 중독상태를 반영하고있었다.

지체없이 수술이 시작되였다.

배를 갈라보니 병상태는 예상외로 더 중하였다.

장이 터져서 오랜 시간 경과하였기때문에 화농성복막염까지 오기 시작하였다.

긴 시간에 걸쳐 긴장한 수술을 끝낸 고빈드는 고압산소치료기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5일간을 보내는 동안 평양과 모스크바간에는 긴박한 전보들이 오고갔다.

고빈드의 병세를 보고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왔던 손님이 돌아가다가 위험에 처했는데 빨리 의료진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라고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한편 **김정일**동지께서는 강력한 의료진을 무어 모스크바에 파견하시면서 환자의 소생에 필요한 귀중한 약품들과 보약재들, 식료품들을 친히 마련하여 보내주시였다.

고빈드는 몽롱한 의식속에서도 조선의 의사들을 알아보고 흐느껴 울었다. 푸라밀라는 친형제가 찾아온것보다 더 반가와하였다.

조선의 의사들은 서둘러 환자의 상태를 료해하기 시작하였다.

체온, 맥박, 혈압 등은 여전히 최악의 선에서 오르내렸고 숨이 차서 말 한마디 못했으며 물 한모금 넘기지 못하고있었다. 배에는 여전히 복수가 와서 수술부위에 고무관을 꽂아놓고 부패물을 뽑아내고있었다.

조선의 의사들은 쏘련측과 합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들은 가지고간 고가약들을 집중적으로 쓰는 한편 새롭게 요구되는 약품들은 주재국 약국들에서 사들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고빈드는 조선의 의사들이 도착하여 3일만에 마침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객지에서 고생하고있는 환자를 위로해주시려고 뉴델리에 두고온 그의 아들을 비행기에 실어오도록 친히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고빈드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머리맡에 앉히고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병실은 활기에 넘치기 시작하였다.

푸라밀라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식료품을 남편의 입에 떠넣으면서 그새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의약품과 식료품, 의료진을 보내주신 고마운 사연에 대해 세세히 알려주었다.

참으로 주체사상에 근원을 둔 인간애는 국경너머 발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따사로운 인간애였다.

고빈드는 다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자기는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것이였다.

겨우 부축을 받아서야 일어나 앉고 배에서 고무관을 뽑지 못하는 형편인데 어떻게 떠나간단 말인가.

푸라밀라는 조선의 의사들에게 도와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의사들이 병상태를 놓고 조리있게 설명을 가했는데 고빈드는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심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나는 빨리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지 않아 나의 조국에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열리겠는데 내가 할 일이 과연 많습니다.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께서 나에게 육친보다 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셨는데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자나깨나 이 한가지 생각때문에 나는 괴로운 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고빈드의 젖은 목소리는 방안을 울리였다.

그를 설복하려던 조선의 의사들도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고빈드는 다시금 말하였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을 나는 나의 체험을 통하여 똑똑히 파악하였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준 이 위대한 사상을 지켜 나는 한생을 다 바쳐 싸울것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사연을 안고있는 고빈드였다.

하기에 그는 이 토론회의의 연단에 나서서 이렇게 웨쳤다.

《주체사상은 인간을 옹호하고 인간에게 모든 혜택을 베푸는 인간중심의 위대한 사상입니다!

때문에 이 사상은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고 누구나 숭배할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필요한 인류공동의 위대한 사상입니다!

나는 이 결론을 적어도 내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검증하였음을 엄숙히 확언하는바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마음들에 받들려 개최된 토론회였으니 그 열기는 참으로 대단한것이였다.

토론회 첫날 저녁 참가자들을 환영하여 진행된 연회에 인디아최고재판소 소장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토론회의 지위가 더욱 올라가는듯싶었다. 그것은 최고재판소 소장이 인디아에서는 실지 정권의 2인자로 인정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이러한 보도는 인디아의 모든 국민들에게 주체사상에 대한 의욕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되는것이였다.

이 모든 작전은 갈데없이 비슈와나스가 고안하고 내미는것이였다. 인디아의 모든 주들에 주체사상연구조직을 다 내오고 전국민을 주체의 힘으로 일떠세우자는것이 그의 목표이고 리상이기도 하였다.

이 모든 비슈와나스의 움직임을 남조선대사관에서는 지켜보고있었다. 하지만 그런것엔 조금도 개의치 않는 비슈와나스였다.

토론회 2일날이였다.

전날에 이어 연설들이 진행되며 회의가 한창 고조에 이를 때 회의장 뒤문쪽에서 약간의 소요가 일어나는 감이 있었다. 주석단에 앉아 예민하게 회의장을 주시하고있던 비슈와나스는 슬그머니 일어나 회의장밖의 복도를 에돌아 급히 뒤문으로 갔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남조선대사관 괴뢰들에게 매수된 우익깡패 4놈이 어떻게 이 청사에까지 들어왔는지 벌써 앞을 막아나선 학회성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회의장에 뛰여들며 소리를 지르고있는 상태였던것이다.

한시도 지체할수 없었다. 될수록이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처리하려고 달려왔으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은것이였다.

돌파해야 했다.

무엇을 가리랴, 이렇게 된바에는 그들을 족치는수밖에.

비슈와나스는 어느새 가죽혁띠를 뽑아들었는지 자기도 알수 없었다. 그는 뒤문으로 놈들을 냅다 따라들어가며 문을 콱 닫았다. 내빼지 못하게 하자는것이였다.

불량배놈들의 뒤통수에 곧 《가죽채찍》의 세례는 무섭게 안겨졌다.

놈들은 뒤에서 날아오는 뜻밖의 타격을 받고 비칠거렸다. 하지만 복수의 채찍은 더 세차게 내려졌다. 숨돌릴 틈을 주어서는 안되는것이였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비슈와나스는 마음속의 가속답판을 밟고 또 밟기 시작하였다. 그럴수록 채찍은 더 세차게 내리쳐졌으며 놈들은 들고온 삐라며 프랑카드따위들을 그자리에 놓으며 갈팡질팡하였다. 비슈와나스의 눈에는 남조선대사관 작자들의 찌그러지는 오만상이 또다시 보여오는듯 했다.

이제는 16년전의 일로 되였지만 아차 실수하여 보기 좋게 쓰러졌던 그날을 정녕코 잊을수가 없는 사나이였다.

충돌하여 찌그러졌던 그의 자동차가 다시 솟구쳐 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세차게 고동치고있는줄을 사람들은 다 모르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항상 마음속의 그 가속답판을 밟고 살았다. 그 자동차는 그가 생을 거두는 마지막순간까지 주체의 대로를 따라 힘차게 질주할것이였다.

불량배들은 당황망조하여 뒤돌아서며 들어온 뒤문으로 내빼려고 허우적거리였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수가 없었다.

앞에는 노호하는 군중, 뒤에는 바위처럼 떡 버티고 서있는 비슈와나스.

가관이였다. 웃음거리가 된 그자들의 몰골은 세계의 면전에서 국제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의 비렬한 음모를 그대로 폭로해주는

산증거물이였다.

돈에 매수된 가련한 놈들은 그날이 자기들의 인생에 그 어떤 치욕의 자욱으로 얼룩져진 날이라는것을 의식할새도 없이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그런자들은 자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불량배들은 불시에 회의장에 뛰여들어와 한가운데 아니면 연단에까지 올라가 들고온 삐라며 소책자들따위를 줴뿌리며 고아대고 달아빼라는 과업을 받았던것이다.

어리석었다. 그러면 회의장은 수라장이 되고 파탄될것이라고 타산한 남조선괴뢰들의 술책은 참으로 어리석은것이였다. 그자들은 아무리 세계적인 대회라고 해도 학자들의 모임장소니 깡패들의 란장질에 설사 맞설 위인이 없을것이라고 보았던것이다. 엄청난 돈으로 불량배들을 매수하면 저들의 계책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하는것자체가 시대착오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은 그사이 비슈와나스에 대한 험담을 끈질게도 내돌려왔다. 그자들은 인디아의 우익반동들을 부추겨 비슈와나스가 마치도 인디아사람으로서의 초보적인 애국심도 저버리고 북조선에 《매수》된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렸다.

모든것을 저들처럼 생각하는 저속한자들이였다. 어떤 방법으로도 비슈와나스의 길을 막지 못하게 되자 그자들은 사회적으로 그의 인격을 떨구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제지시키려고 집요하게도 꾀하여왔다.

그자들이 내돌린 소문은 비슈와나스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좀스러운 책동에 위구를 느낄 그가 아니였다. 그가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나라의 전도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립장으로부터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것은 모두에게 알려져있기때문이였다. 또한 그 어떤 험담도 한두사람을 속일수는 있어도 결코 인민을, 력사를 속일수는 없기때문이다.

그는 누가 그 무슨 말을 한다해도 무서울것이 없었다. 자기의 량심이 있기때문이다. 량심대로만 살면 그만이라는 배심이 그에게 든든히 자리잡고있었다.

온갖 거짓과 험담이 나돌아도 그는 사람들앞에 나서기를 주저하

지 않았다.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사는 인간은 언제나 이 하늘아래 떳떳한것이다. 그의 심장은 바다마냥 절대로 얼어붙지 않았다.

거대한 기업을 독자적으로 이끄는 그가 돈에 팔릴 사람이 아니라는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였다.

일이 이쯤되자 비렬한 놈들은 불량배들을 매수하여 이런 추태까지 연출해냈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놈들이 뿌리지 못하고 그자리에 떨구고 간 선전물들을 두손에 주어들고 회의장 가운데길을 걸어 연단으로 나갔다.

일시 격분하여 들끓던 청중들은 다시 조용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자 방금 목격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회의를 파탄시키려고 반동들이 별의별 추태를 다 부리고있지만 자주에로 도도히 굽이치는 시대의 거세찬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입니다.》

비슈와나스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확신에 넘친 그의 말은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역시 그는 말을 할 때 가서는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였다.

확실히 그는 센 사람이였다. 의지도 사상도 육체도 활동도 모든것이 다 폭풍같은 사나이였다.

그 폭풍은 회의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고있는 싼또쉬 꾸마리의 두눈에는 안도의 빛과 함께 믿음의 빛이 력력히 비끼고있었다. 평양, 도꾜, 런던 등 여러 나라들을 남편과 함께 다니면서 국제토론회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는 그였다.

《쉬바신》을 우러러 한 가정의 평온만을 기원하던 그의 넋에 이제는 나라의 진보와 세계의 자주화라는 보다 숭고한 인류의 기원이 깃들었던것이다.

각국의 토론자들은 더욱 흥분하여 열기띤 목소리로 자기들의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표명하였다.

악은 사람들에게 선을 인식시킨다.

우익놈들의 소동은 회의분위기를 떨어뜨린것이 아니라 토론회참가자들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더 굳게 뭉쳐나아갈 확고한 결의들을 더 뚜렷하게 표명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인디아의 모든 통신, 보도수단들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소식을 앞을 다투어 알리였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의 보고와 토론들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채택된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편지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선언의 전문을 실었다.

론평가들은 이번 토론회를 자주, 평화, 친선을 위한 의의깊은 국제적모임이라고 평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의 탄생일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마음은 자연히 그이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쏠리고있었다.

모두가 탄생 70돐을 맞으시는 **김일성**주석을 뵙고싶어하였다. 또한 그이의 공인된 후계자이신 **김정일**동지를 뵙고싶어하였다. 그것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5대륙의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을 안고 비슈와나스는 토론회가 끝난 다음날 정부와 민항의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것은 조선으로 가는 비행기를 통채로 한대 내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뉴델리에서 평양으로 곧장 가는 비행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그때에도 력사의 반동들은 비행기안에 폭탄이 장치되여있다는 소문을 내돌리면서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모든 대표단들은 그 비행기에 주저없이 올랐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같았다. 설사 조선으로 가는 하늘길에서 재가루로 흩날린다 해도 그 재가루는 조선땅에 뿌려지리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정의의 나라, 주체의 나라로 가는 인류량심의 걸음은 결코 멈춰세울수도, 막을수도 없는것이였다. 진리는 언제나 력사의 반동들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간다.

비슈와나스는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대표단 단장의 명의로

왔다.

그때 그 비행기로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인디아공화국 부대통령 샹카르 다얄 샤르마와 인디라 간디수상의 특사가 함께 왔었다.

당시 샹카르 다얄 샤르마는 인디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였으며 또한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 부위원장이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을 방문하고 돌아간 이후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였다.

4월 13일.

비행기는 무사히 평양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온 세상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격정에 넘쳐 웨치는 만세소리는 평양의 하늘가에 높이높이 울려퍼졌다.

8. 소원이 풀리다

4월의 조선은 꽃바다였다.

사람도 거리도 집들도 모든것이 말그대로 꽃이 되여 꽃바다로 설레였다.

온 나라가 그야말로 대잔치집이였다.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은 온 나라, 온 세계의 명절이였다.

세계의 118개 나라에서 온 국가수반들과 정부총리들, 당수들, 대통령특사들을 비롯한 221개의 당 및 정부대표단 그리고 여러 조직대표단들과 각계층의 저명한 인사들을 맞이한 평양은 환희로 들끓고있었다.

평양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친척같았다.

비슈와나스는 비행장에서 아브둘 말라크와 만나 포옹하였다. 얼마나 시련에 찬 언덕을 넘어 여기서 만나는 친구들인가!

시련이 컸던 그만큼 그것을 이겨낸 긍지는 끝이 없었고 상봉의 기쁨 또한 이를데 없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였다. 아브둘 말라크는 그가 지

금 알따브 후쎄인을 찾고있다는것을 직감하였다. 아브둘 역시 평양비행장에 내리자부터 혹시나 하고 찾고있는 알따브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각국의 손님들이 비행장의 홀을 다 나올 때까지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고 묻는듯이 비슈와나스는 아브둘 말라크를 쳐다보았다.

《알따브는 카라치에서 토론회까지 참가하고 떠나갔네.》

《그래서?》

비슈와나스는 성급하게 다음말을 재촉하였다. 타는듯한 그의 눈빛은 그다음 일이 어떻게 되였는가를 묻고있었다.

《우린 평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을뿐이야.》

《?…》

그다음 그들은 알따브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를 꼭 평양에서 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믿음이 헛되였단 말인가.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친구의 정이 너무도 두터웠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리해를 앞세우면서도 그들의 가슴속 한구석에는 섭섭함이 그냥 남아있었다.

그 다음날인 4월 14일.

이날 오전 4.25문화회관에서는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합동회의가 성대히 열리였다.

영광스럽게도 비슈와나스와 아브둘 말라크는 다같이 뜻깊은 이 회의에 초대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하게 된것만 해도 더없는 영광인데 비슈와나스는 다른 나라 수반급들과 함께 회의 주석단에 앉는 특혜를 받게 되였다.

주석단 두번째 줄에 샹카르 다얄 샤르마부대통령이 앉고 그는 세번째 줄에 앉았다.

두분의 위대한 수령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에 이끌려 비슈와나스는 저절로 눈시울이 젖어왔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인사를 드리고싶은 충동을 느끼였다.

며칠전에 **김정일**동지의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받아안고 너무도 흥분되여 그이를 단 한번만이라도 직접 만나뵈옵기를 간절히 바라던 비슈와나스였다.

그이의 로작은 읽어볼수록 음미해볼수록 인간의 참된 삶이 안겨오고 자주의 새 세계가 안겨오는 주체사상총서였으며 인류공동의 재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전일적으로 집대성하고 독창적인 사상리론적재부들로 새롭게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의 구성과 내용을 명백하게 천명하시였다. 그이의 로작은 자주위업실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 불멸의 대강으로 비슈와나스의 심장속에 새겨졌다. 정녕 불멸의 그 로작은 **김정일**동지와 비슈와나스사이에 맺어지는 끊을수 없는 사상정신적뉴대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그이의 불멸의 로작을 또다시 직접 받아안는 비슈와나스는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을 새롭게 제시해주시였으며 또한 자주화된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 시각 비슈와나스는 온 세상 앞길이 탁 트이는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회의장이 떠나갈듯한 청중의 우렁찬 박수갈채속에 도간도간 끊어지군 하였다. 그이께서 시정연설을 마치시자 휴식시간이 선포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으시며 천천히 복도로 나가고계시였다.

줄곧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던 비슈와나스는 이 순간에 어떻게 자기가 그이의 뒤를 따라 복도로 나섰는지 몰랐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차례지는 기회, 아니 차례질수 있는 모든 기회에 자기도모르게 심장을 내대는 그 성격이 어찌 이 영광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한자리에 가만있을수 있으랴.

놓치기 쉬운것은 기회다. 붙잡으면 일생에 다시없을 영광의 시각으로 아로새겨질 그러한 기회가 지금 그의 눈앞에 온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걸어나가고계시였다.

이 순간 비슈와나스는 그 무엇도 의식할새가 없었다. 그의 눈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이의 영상만이 확 안겨오는것이였다.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비껴있는듯 한없이 준수한 그이의 모습 **김정일**동지!

아, 태양이시다.

그이의 영상을 가까이에서 뵈옵는 순간 눈부시게 빛발치는 태양의 그 빛발에 이끌리듯 비슈와나스는 무랍없이 그이의 앞으로 달려나갔다.

《**김정일**각하! 뵙고싶었습니다. 인디아의 비슈와나스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얼마나 고대하던 이 순간인가.

뵙고싶었다. 참으로 뵙고싶었다. 하지만 기회가 없어서 최대의 소망을 마음속에 고이 품은채 날을 보내던 비슈와나스였다.

그는 기회를 붙잡았다.

역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번개같이 붙잡는 바로 여기에 그의 천성적기질이 있는것인가.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비슈와나스에게 손을 내미시였다. 순간 그의 가슴은 감격에 휩싸여 쿵쿵 울리였다.

그이께서 자기의 손을 잡아주시는 순간 비슈와나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그 무엇이 온몸에 흘러드는 감을 느끼였다.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자기의 손을 잡

아주시였다는 그 사실자체가 꿈만같은것이였다. 이 순간을 놓칠세라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슈와나스를 휴계실로 이끄시였다.

뜻밖에 차례진 영광의 자리였다.

아, 이것 역시 《하느님》이 준 기회인가.

이루 다 말못할 최대의 영광이 지금 그의 앞에 다가온것이였다. 일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 그를 맞이한것이였다.

무엇을 주저하랴.

비슈와나스는 꿈처럼 마련된 이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해온 소감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각하! 당신은 **김일성**주석각하의 사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계시는 조선의 유일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성격그대로 열정적으로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들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당신도 위대한 수령님과의 친분관계에서는 나만큼 가깝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나는 당신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당신이 쓴 책도 다 읽어보았다고, 아시아에서 많은 일을 하고있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황송하였다. 그는 서둘러 다시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각하는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계십니다. 저는 각하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있습니다. 각하는 위대한 수령의 후계자이십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나라에 충실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감동적이였다.

한없는 격정에 휩싸인 비슈와나스는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과 빙상관, 창광원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세계 최상급으로 일떠세운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령

도적수완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모든 창조물은 우리 인민대중이 이루어놓은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집행했을뿐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비슈와나스는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겸허하신 인품에 머리가 저절로 숙어졌다.

이 순간 그는 인류의 찬란한 앞날이 다 보여오는듯 했다. 이처럼 숭고한 정신세계를 지니신분이시야말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실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이 너무도 확정적으로 안겨오기때문이였다.

그렇다. 또 한분의 영명한 수령을 모심으로 하여 인류의 찬란한 미래,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인디아의 문호 타고르는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는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했지만 조선은 두분의 천출위인을 맞아 《등불》이 아니라 자주의 《태양》으로 누리를 비치고있는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확신하는 그의 온몸엔 새로운 힘이 부쩍부쩍 솟아올랐다.

비슈와나스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정중히 말씀올렸다.

《당신께서 앞으로 세계자주화위업을 이끄실것입니다. 부디 건강을 축원하는 바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의를 표하시며 또다시 비슈와나스와 뜨거운 악수를 나누어주시였다.

비슈와나스는 삼가 그이께 인사를 드리고 휴계실을 나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비슈와나스의 말에 의하면 그때 20～25분간 걸렸다고 한다.

갑자기 한참동안 없어졌다가 나타난 그를 보며 샹카르 다얄 샤르마부대통령과 주조 인디아대사는 의아해하였다.

《어디에 갔댔는가?》

비슈와나스는 어깨를 으쓱이였다.

《**김정일**각하와 담화를!》

그들은 놀랐다. 사실인가고 그들은 반문하였다. 사실이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도 **김정일**동지를 단독 접견받은적은 없었던것이다. 대외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께 맡기고 뒤에서 보좌해주고계시는 그이이시였다.

다음날 보도에 **김정일**동지께서 비슈와나스를 접견해주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야 그들은 확고히 믿을수 있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영광을 받아안은 비슈와나스였다. 그이를 만나뵈왔다는 그것만으로도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되는 세계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였다.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의 소원은 풀리게 되였다.

그날밤 비슈와나스는 아름다운 대동강반에 새롭게 솟아올라 창공을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웅장화려한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였다.

주체의 봉화는 세기의 하늘가에 타오르며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노래, 인류의 참다운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새겨주고있는것이였다.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고 뭇사람들이 찬양하는 프로메테우스의 《기적》은 한갖 신화에 불과하지만 주체사상의 봉화야말로 인류를 자주적삶에로 인도하는 참된 사상과 리념의 영원한 홰불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그 탑의 봉화와 함께 이 세상에 새롭게 태여난듯한 기분이였다. 그는 삶의 뜨거운 기운이 혈관속에서 세차게 흐르며 생활이 보다 풍부해지고 가슴이 희망으로 벅차오르는감을 느끼였다.

문득 그의 뇌리에 오늘이 며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디아력법으로 바로 그날이 1월 1일이였던것이다. 물론 인디아에서도 서력을 쓰는데 종교적행사들은 모두 인디아력법에 따라 하고있었다. 기원전부터 사용되고있다는 인디아력법은 1년을 360일로 하는데 대체로 1월 1일은 4월 14일에 닿고있었다.

우연한 일치인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이 낸 인물이 바로 그이이시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는 그렇게만 믿고싶었다.

오, 새날이여! 가없이 펼쳐진 하늘이 더 밝게 개이고 끝없이 이어진 앞길이 더 넓게 열려지는 환희의 날이여!

갑자기 그의 마음속의 두루미가 활개를 치며 솟구쳐올랐다. 끼룩끼룩 노래하며 빙빙 돌아가는 그 두루미는 탑이 빛나는 하늘아래서 온통 금빛으로 물들여지는것이였다.

아, 나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구나!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며 무아경에 휩싸여 훨훨 날아가는감을 느끼였다.

그의 가슴속에는 은연중에 자기는 새해의 이 첫아침에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깃들고있었다.

나는 태양의 전사다!!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자부심을 안고 그는 평양의 하늘가에 타오르는 탑의 봉화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9. 끝난 곳에 시작이 있다

정열적인 삶의 소유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자체가 새로운 일의 련속으로 설계되여있는듯싶다.

비슈와나스는 부지런히 인생길을 걸어갔다. 항상 끝난 곳에서 또 새로운것을 시작하면서…

창조성은 역시 인간의 본성이였다.

주체사상연구보급이라는 성스러운 길에 걸음을 찍어가는 그의 나날은 토론회와 도서집필의 련속이였다. 그는 자기도모르게 토론회 하나를 마치면 더 큰 토론회를 새롭게 준비하는데 달라붙었고 한권의 도서를 끝내면 또 다른 도서를 구상하였다. 그렇게 흘러간 1980년대였다. 빛나는 년대였고 보람찬 년대였다.

이 년대에 주체사상연구보급은 세계적범위로 확산되였다. 아프리

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가 시에라레온에서 창립(1985. 4. 15)되였고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가 프랑스에서 결성(1985. 10. 20)됨으로써 모든 대륙들에 지역연구소가 다 조직되여 움직이고있었다.

주체사상이 어떤 사상이기에 국제적인 학술기구까지 존재하며 각 대륙들에 그 연구조직이 다 나와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가.

특히 전유럽적인 주체사상연구조직체의 결성은 유럽사람들은 물론 광범한 세계사회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유럽을《세계의 우수한 사상과 문화의 발상지》로 자부하는 유럽인들이 동방조선에서 창시된 사상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역에 연구보급하기 위한 전유럽적조직체를 내온다는것은 결코 범상한 일이 아니였다. 이것은 조선에서 나온 주체사상의 보편성과 견인력에 대하여 웅변적으로 말해주는것이였다.

또한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를 명망높은 학자인 에드몽 쥬브(연구회 리사장)가 이끈다는것은 사회의 관심을 끌게 하였다.

그는 이미 1966년에 프랑스 정치학 및 법학 국가박사칭호를, 1968년에는 국가정교수학직을 수여받은 오래고 경험있는 학자였으며 대학교수였다. 그리고 프랑스 제3세계연구협회 서기장, 국제법연구프랑스협회 성원, 제3세계년감편찬위원회 위원, 프랑스평화옹호위원회 위원, 국제사회발전전망연구협회 집행위원, 프랑스어로 말하는 작가들의 협회위원장직을 겸임하고있는 유명한 사회활동가로서 프랑스대통령으로부터 나뽈레옹시대에 제정된 레지옹 도네루훈장까지 수여받은 사람이였다. 그는 1989년에는 프랑스 해외과학원 원사칭호를 수여받았다.

1985년 4월 윈에서 열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2차 집행위원회에서 한스 클레카츠키(오스트리아공화국 전 사법상,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종합대학 공법 및 정치학연구소 소장)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으로 선출된것 역시 사회의 주목을 끌고있었다.

국제연구소 초대리사장이 아시아인이였다면 제2대 리사장은 유럽인이 선출되여 맹활약을 하고있다는 그것자체가 주체사상은 어느 한 지역에 한한 사상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리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는것이였다.

한스 클레카츠키는 정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였다.

일찌기 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법학박사가 된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의 앞길에 대해 깊이 모색하였다. 오랜 세월 수난에 찬 예속의 력사와 함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해온 자기 조국의 인민들은 그 어떤 지배와 예속도 없는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갈망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 인민의 이 간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학문탐구와 정치활동으로 한생을 불태워왔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등, 자주성을 보장해주는 문제를 결코 법으로는 다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시켜줄수 있는 참된 리념을 찾아 세계의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을 다 돌아보면서도 찾지 못했던 위대한 사상을 그는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에서 발견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조선을 방문하고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인간해방의 위대한 사상에 대해 리론실천적으로 확고히 공감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영구중립》을 국시로 삼고있는 자본주의나라에서 정치활동도 적지 않게 했고 자본주의법학과 정치학을 오래동안 연구해오던 그가 주체사상을 따르게 된것이였다.

한스 클레카츠키가 인생말년에 방향전환을 하여 이처럼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데 앞장서게 되였다는 사실은 서방학자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킬만도 한 일이였다.

참으로 벅차게 흘러간 1980년대였다.

이 년대에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지역에 강력한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였다.

1986년 4월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에서 진행된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비슈와나스는 한스 클레카츠키와 에드몽 쥬브, 서부도이췰란드(당시)의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를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슈와나스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럽은 주체사상을 뒤늦게 받아들였지만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보급사업은 유럽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사변으로 될것입니다.》

한스 클레카츠키는 이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유럽에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사실 큰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여 반드시 세계적인 지도자로 불리우는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지도자라면 적어도 정치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운명을 결정하고 그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혀줄수 있는 위인이여야 합니다.

그런분이 바로 **김일성**주석이십니다.》

에드몽 쥬브는 이렇게 말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자존심이 강한 유럽학자들에게서 그 어떤 좋은 사상도 그 권위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학자로서의 량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유럽인들이 진리를 탐구하려면 주체사상을 따라배워야 한다고말입니다.》

루이저 린저 역시 이에 동감을 표시하는것이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원리와 결부하여 유럽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인 유럽의 자주화문제를 직접 다룬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입니다.》

루이저 린저가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사상의 창시자에 대하여 격찬한다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늘 비평만을 쓰는 그를 가리켜 세상사람들은 《부리사나운 계절조》라고 부르고있었던것이다.

루이저 린저는 제1차 세계대전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서반구와 동반구에서 일어난 사변들을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목격한 비판적사실주의녀류작가였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무소속문필가로 된 그는 예민한 안목과 신랄한 비판력으로 자기가 쓴 책들이 22개 나라말로 번역출판되고 두번에 걸쳐 세계문학상을 받던 기쁨앞에서도 조금도 인상을 달리하지 않던 《랭랭》한 녀자였다.

도이췰란드를 떠나 로마에 거주지를 정하고 5대륙을 다 다녀

보며 적지 않은 국가수반들과 유명무명의 정치지도자들을 만나본 그에게는 그의 붓이 말해주듯이 늘 불만의 대상은 많았어도 존경이 가고 탄복되는 위인은 없었다.

그는 서부도이췰란드(당시)와 남조선괴뢰들사이에 조작된 이른바 《련대위원회》고문단성원으로 남조선에 간적도 있었다.

그러던 그가 조선을 방문하여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고는 흥분과 감격을 안고 이 세상을 웃으며 활보하는 새 인간으로 태여났던것이다.

그때 그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앙양되여있었는가 하는것은 15개 장으로 된 《조선방문기》를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탈고한 사실에서도 알수 있었다. 그는 문필로 인생의 봄을 맞이하였고 문필로 황혼기도 맞이한 자기가 그 글을 쓸 때처럼 흥분되고 정열에 북받쳐보기는 처음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 글의 마지막장 《**김일성**》이라는 제목에서 자신은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게 됨으로써 리론과 실천에서 사회주의를 인정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주석의 사상과 실천은 제3세계가 선택하여야 할 길이다. 서방은 적극적으로 그분과 사업하여야 할것이다. …

김일성주석이 계심으로 나는 인류의 미래를 확신한다.》라고 호소하였다.

루이저 린저는 신자였다.

그는 사람이 곡절많은 한생을 리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면 그 무엇인가를 믿는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였다. 그는 《사람들이 정신속에서, 진리속에서 하느님을 흠모할》것을 바랐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박애》를 념원하였었다.

그러던 그의 심장속에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신께서 원하시건 원치 않으시건 신적존재로 추대되신분》이라는 신념이 자리잡은것이였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께 기도는 드렸어도 꽃다발을 드린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은 실제적인 행복을 준 일이 없기때문입니다.

나는 인류에게 실제적인 자유와 평화의 길을 밝혀준 **김일성**주석께 뜻깊은 백두산의 꽃을 꺾어 꽃다발을 엮어 삼가 드리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비슈와나스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만민을 끌어당기는 위대한 힘을 지니신분이시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주체사상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는 확신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는것이였다.

제노라하며 세상을 돌고돌던 모든 사람들이 조선을 방문하고 **김일성**주석을 한번 만나뵙기만 하면 이들처럼 주체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새롭게 태여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이처럼 해마다 진행되는 주체사상국제토론회들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보다 많은 세계의 인사들과의 뉴대를 두터이해가는 그 바쁜 나날속에서도 집필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도서 《위대한 수령의 자제분》(뉴택크출판사. 1986)과 《향도성－**김정일**》(뉴택크출판사. 1988)을 집필하여 출판발행하였던것이다.

1988년말에 비슈와나스는 필리핀에 가게 되였다.

인디아정부에서는 마닐라에서 진행되는 국제과학토론회에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뻗치고있는 《인터라즈》총사장을 나라의 대표로 파견하였던것이다.

그 토론회는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발전을 서로 도모하자는데 목적을 둔것이였다.

그 토론회에서 남조선《대표》는 자기네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하여 장황하게 렬설하였다.

그의 토론을 다 듣고난 비슈와나스의 감정이 좋을리 없었다.

이윽고 인디아의 차례가 되여 그는 연단에 나섰다.

나날이 발전하고있는 인디아의 새로운 과학기술면모에 대하여 통보하고난 그는 남조선 《대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가 한 연설을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럴 때 보면 그 역시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 《정의의 날카로운 부리》였다.

《물론 남조선의 기술은 당신이 말한것처럼 발전하였다고 하자.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 길가에서 방황하고있으며 빈민굴에서 살고있다. 또한 수많은 매음현상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돈만 있으면 총을 사서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있지 않는가.

대답해보라. 나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당신이 한번 말해보라.》

비슈와나스는 부리부리한 눈길을 남조선 《대표》에게 던지며 마음속의 하고싶은 말을 꺼리낌없이 해나갔다. 정면으로 주는 면박이였다.

세계의 긴장한 시선들이 연단에 선 비슈와나스와 객석에 앉아있는 남조선 《대표》사이를 부단히 오갔다. 남조선 《대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자세였다.

인디아의 대표인 《인터라즈》총사장의 웅글고 열기띤 목소리는 청중의 머리우에 높이 울려퍼졌다.

《과학과 문명을 사랑하는 세계의 선량한 마음들이 모인 이자리에서 나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싶습니다.

지난 시기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평양에 온 남조선의 한 〈대표〉에게 세가지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북반부에 많은 원료를 가져가고싶은대로 가져가라고 하신것입니다.

둘째로는 남조선의 바다에 고기가 없으면 북조선의 바다에 와서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아가 남조선의 많은 실업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신것입니다.

셋째로는 북조선에는 아주 훌륭한 관개체계가 수립되여있는데 그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면 가져다 관개체계를 수립하라고 하신것입니다.

그런데 그자는 담화석상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긍정하고 돌아가서는 다 거절하고 북조선의 아름다운 명승지들에 호텔이나 지어놓고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을 많이 받으면서 돈벌이를 하는것이 어떤가고 제의해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했겠습니까?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보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알면 돌아가서 자기들을 뒤집어엎을가봐 겁나하였기때문입니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는 **김일성**주석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였습니다. …

여러분!

이 세상에 **김일성**주석과 같으신분이 여러명 있다면 세계에는 평화와 번영만이 있을것입니다.》

비슈와나스의 토론이 끝나자마자 회의에 참가한 수천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어느새 꼬리를 사렸는지 남조선의 《대표》라는자는 보이지 않았다. 가소로운 《대표》였다. 그래도 그자는 한때 명색이 《대통령》이였던 최규하였다. 물론 박정희사살후 전두환세력에 의거하여 실권없이 몇개월간 《대통령》자리에 올라있었지만.

필리핀에서 돌아온 비슈와나스는 이 사실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였다. 정부의 대표로 이 회의에 참가하였던것만큼 그는 이 기회를 남조선집권자들을 폭로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당시 수상은 라지브 간디였다.

인디라 간디녀사는 1984년 10월 31일 아침 친위대성원들인 2명의 씨크교도들에 의하여 암살당하였다. 씨크교도들은 자기들의 폭동을 진압한 인디라 간디에게 앙심을 품고있었던것이다.

라지브는 이미전에 정계에 나서지 않을것이라고 말한바 있었다. 하지만 국민대회당의 의원들은 라지브를 새 지도자로 선거하고 새로운 내각을 발족시켰던것이다.

어머니의 뒤를 이은 라지브 간디는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있었다.

이즈음 베를린장벽이 붕괴되는 놀라운 사변이 일어났다.

장벽은 1961년에 구축한것이였다. 동부로부터 서부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금지하기 위해 장애물과 철조망으로 길을 차단하고 그다음 콩크리트블로크로 쌓아놓았던 이 장벽이 28년만에 붕괴되는 화면은 온 세상에 공개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대국들에 의해 분렬되였던 도이췰란드가 40여년만에 통일된것이다.

1989년 11월에 일어난 이 사변을 계기로 세계정세는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세계는 법석 떠들었다. 동유럽의 나라들에서 개혁, 개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갔다. 사회주의진영에 분렬구가 터진것이였다.

하지만 비슈와나스의 마음은 1980년대의 이 령마루에서 줄곧 자주위업의 새 년대기에로만 이어지고있었다.

그는 1992년을 생각하고있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탄생 정주년을 맞는 가장 뜻깊은 해였다. 무엇인가 선물을 마련해야 하였다. 력사에 전해지고 인류에게 남을만한 가장 의의있고 뜻깊은 선물을!

그는 며칠을 두고 생각하였다.

내가 마련할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가.

그의 생각은 만민의 하늘의 뜻을 정립하여 세상에 남기는것보다 더 신성한 일은 없을것이라는데 미치였다.

조선에도 세계에도 **김일성**주석에 대한 책은 수백수천권에 달하지만 그이에 대한 백과사전은 없지 않는가. 백과사전은 영원히 보존되여있을것이다. 작은 책은 한번 읽고 버릴수도 있는데 사전만은 누구나 보존하는것이다.

그렇다, **김일성**주석에 대한 백과전서를 만들어 영원히 보존되게 함으로써 태여나고 태여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읽게 하여야 한다.

그이에 대한 백과전서의 편찬이야말로 **김일성**주석의 제자로서, 주체사상신봉자의 첫 세대로서 내가 동시대인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해야 할 성스러운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시작전부터 흥분되였다.

그 누구에게 물어볼것도, 승인받을것도 없었다. 이것은 자기의 진정이자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일것이였다.

그가 알고있는데 의하면 19세기에 《대영백과사전》이 나온후 그와 맞먹는 큰 사전은 없었다. 더더구나 인물백과전서는 나온

적이 한번도 없었다.

비슈와나스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되는 위인의 이 인물사전을 가장 훌륭하게 완성하여 세계의 이름있는 도서관들과 대학, 연구소들에 보관되게 하고싶었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이 생각을 에쓰. 피. 쵸프라에게 말하였다. 그는 절대찬성이였다. 《인터라즈》의 창립당시부터 그 경영활동에 크게 기여해오고있는 에쓰. 피. 쵸프라는 책이 완성되면 그 인쇄공정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것이였다. 리윤에 앞서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향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이런 벗들이 있어 《인터라즈》는 오늘까지 자기 일로를 무난히 걷고있는것인지도 몰랐다. 에쓰. 피. 쵸프라는 《인터라즈》와 더불어 오랜 나날을 서로 리해하며 함께 손잡고오는 귀중한 벗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김일성**백과전서》발행계획을 1990년 4월 에콰도르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회 제9차회의에 상정시켰다.

《나는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김일성**백과전서〉를 발행할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1992년 2월에는 주체사상의 계승자이신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맞으며 뉴델리에서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열것을 제의합니다.》

그의 이 두가지 제의는 모든 리사들의 찬동을 받았다.

이노우에 슈하찌는 이렇게 말하였다.

《비슈와나스선생의 발기는 우리를 크게 고무하고있습니다.

〈**김일성**백과전서〉의 발행과 주체사상국제토론회는 위대한분들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로 될것입니다.》

이노우에 슈하찌는 이 회의에서 국제연구소 리사장으로 선출되였던것이다. 그는 3대 리사장이였다. 국제연구소가 창립되여 이날까지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을 바로 그가 계속 이어가야 했다. 클레카츠키는 년령상 명예리사장으로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세계의 동료들과 함께 1992년의 이 뜻깊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에 새롭게 착수하였다.

《**김일성**백과전서》를 편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부색과 언

어, 신앙과 정견을 달리하는 수많은 정치가들과 학자들, 인민들이 이 사업에 자기를 참가시켜줄것을 열렬히 희망해왔다.

곧 국제적인 편찬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일본의 이노우에 슈하찌교수와 프랑스의 에드몽 쥬브교수, 에꽈도르의 알바 챠베스박사를 비롯한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인디아학계에서 이름있는 학자들 45명이 선발되여 참가하였다. 이 사업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여러 나라 정치가들과 작가, 예술인들은 비슈와나스에게 1만여통에 달하는 편지와 전보문들을 보내여왔다.

그는 **김일성**주석을 인류의 태양으로, 주체사상을 참다운 인간위업의 찬가로 칭송한 이 편지와 전보문들을 그대로 백과전서의 편찬자료로 리용하였다.

그 나날은 **김일성**주석을 하늘로 우러르는 진보적인류의 신뢰가 얼마나 절절한것인가를 다시한번 절감하는 나날이였다.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여러차례 받으며 느낀 그이의 위인상과 그이의 로작들에 새겨져있는 심오한 철학사상,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들을 전서에 빠짐없이 담으려고 그는 노력하였다.

《인디안타임스》주필로 어언 칠순을 눈앞에 바라보게 된 나이였지만 그때 그는 **김일성**주석은 참으로 글로나 말로써는 도저히 그려낼수 없는 하늘같은분이시라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것이였다. 그럴수록 그는 긍지감을 느꼈다. 바로 그런 위인에 대한 책을 전서로 남길데 대한 자기의 발기가 참으로 잘한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것이였다.

그는 밤가는줄 모르고 집필하였으며 또 투고되는 글들을 편집해갔다.

앞일을 설계하는 사람은 젊음에 넘쳐 살기마련이다.

끝없는 창공을 향하여
찬란한 광명을 향하여
자유의 공기를 향하여
태양의 빛을 받아
자유의 깃 펼친 새야
날으라 우주의 한끝까지